

## 국제복음선교회 임시총회 및 기도회 가져

서울핵안보정상회의와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를 위해 기도했다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

국제복음선교회(이하·국복선)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는 “큰 복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이란 주제로 3월 26일(월) 오전 11시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예광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기수)에서 국제복음선교회의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개정과 임원선출을 하고 이어 정경운 박사를 초청 교회건설팅이란?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국제복음선교회는 감시목사(인천서구교회) 인도로 1부 예배를 진행하여 이병철 목사(의정부그리스도교회)가 기도회, 이성민 목사(새소망교회)는 “시편126편 1~6절 말씀을 인용 행복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갈렘 목사(병성교회)의 특송을 하고, 우기수 목사(예광순복음교회)의 봉헌기도에 이어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로는 20여 회원을 개개인의 기도 요청에 따라 합심하여 부르짖는 중보기도가 있었으며, 3부 식탁천교와 4부로 대표

회장 이재갑 목사 사회로 임시총회가 개최되고 회칙개정이 통과됐다. 새롭게 통과된 회칙에 의해서 임원선거에 들어가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를 비롯해 현 임원 전원 유임됐다. 따라서 국제복음선교회는 국내외 선교에 대해 여러가지 안건과 토론을 갖고 구체적인 사안은 임원회에 위임케 하고 차후 유인물로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5부 순서로 정경운 박사를 특별강사로 초청 교회건설팅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아울러 국제복음선교회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는 4월 월례회는 4월23일(월)~25일(수) 2박3일간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소풍에서 부부동반으로 특강을 통해 현장목회와 선교에 영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복음선교회는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를 비롯해 8명의 회원들과 같이 5박6일 동안 태국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등에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영혼구원의 중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교활동하는데 있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다음 선교지를 향해 준비하며 기도에 들어갔다.

또한 이날 국제복음선교회는 간절히 특별기도하기는 50명이 넘는 세계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길 원하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1947년 4월6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시작되어 64년의 역사를 갖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파가 참여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행사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한기총과 비대위는 서로가 담을 쌓고 각자 따로 따로 목소리를 내며 부활절 행사가 연합으로 어렵게 됐다. 국제복음선교회는 비록 단체는 미약하고 거대한 인물로 이름은

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열정은 대단하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고 세계복음선교를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기총을 비롯 각 단체를 위해서도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북 어용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서울에서 개최 되는 핵안정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성명발표 따위의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는 등 핵안정정상회담 개최에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

이는 광명성3호 장거리 대륙간탄도유도탄(ICBM)발사에 미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그나마 기뻐만한 후견인 격의 중국마저도 발사포기를 요구하고 나서자 당황한 나머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보려는 수작인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출지에 기쁜 언덕을 잃어버리고 상실감과 불안감에 쫓기는 김정은으로서 북한 ‘천만민’에게 내세울 것이라고는 몇 차례 불꽃놀이 축제와 <배짱과 본래>를 보여 주려고 저지른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이 고작인 것이다. 더구나 북에서 내세우는 백두혈통 만경대가계와는 인연이 먼 오사카 기쁨조 혈통인 김정은으로서 무언가 큰 사고를 쳐야 만하다는 강박관념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강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 운반로켓 불꽃놀이에 착안한 것이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6.25남침 전쟁으로 미군과 맞서고 아비인 김정일이 8.18도끼만행과 KAL기 공중폭파로 악명을 떨친 반미투쟁업적에 대한 선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대형도발이라는 모험을

### ■사설

#### 불꽃놀이에 정신 팔린 하룻강아지

김정은이 천둥에 놀란 개처럼 내대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국제정세나 주변여건을 냉철하게 보고 자제와 인내를 하기보다는 충동과 객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출혈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정부와 군 당국이 저지를 실수는 김정은 같은 애송이에게는 “까불면 뼈도

#### 담담타타 낚은 수법, 벼랑 끝 전술 구태는 김정은 자멸을 재촉

못 추진다.”는 인식을 새기도록 천안함과 연평도포격시에 무차별 무제한 보복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었어야 했음에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사일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린 철부지 어린이 투정은 무시하는 것도 전략이다. 그러나 김정은 입에서 나왔던 기보다는 북괴 군부 입에서 나온 <연평도 불 맛, 청와대, 서울, 인천 불바다>위협에 대해서는 백,천배 응징의 태세를 갖춰야한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는 하지만 하룻강아지는 하룻강아지 일뿐이다. 김정일이 썩다 버린 담담타타(談談打打)벼랑 끝 전술은 이미 낚을 대로 낚은 술책이다. 무턱대고 보채는 식의 행태는 김정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할 뿐이다.

## 한명수목사 잠들다 (예장합동 전 총회장)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한명수 목사 향년 80세(참훈대교회)가 3월 25일 오전 4시 20분 자병으로 주님 품에 잠들었다.

한명수 목사는 수원장훈대교회

를 1964년도에 설립했으며, 40년간을 담임목사로 섬겨오다 2004년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한 목사는 황해도 출신이며, 2002년 예장합동 87대 총회장을 역임한 그는 총회 발전에 공헌한 바 크다.

한 목사는 2011년 6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고, 병세가 호전되었을 때는 본 교회

에 출석하여 축기도 했는데, 그것은 곧 그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또한 한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초대 총무, <기독신문> 주필, 한국찬송가공회 회장, 종신대 재단이사장 지내는 등 교계 정치 중심에 그가 있었다.

그는 또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에 반대한 보기 드문 보수목회자였다. 90년대 이후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평양에 가서 빵 공장을 설립하는 일에 앞장 서기도 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를 맡는 등 통일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2000년대에는 보수 기독교 단체를 향해 “권력에 영합하는 연행을 중단하라”고 일침 했다.

유족으로는 환연속 사모와 3남 1녀가 있다. 예장합동 총회장으로 장례가 진행되었으며, 발인 예배가 28일 오전 6시 수원시 연무동 참훈대교회에서 드려진 후 이천국립현충원에 안장 됐다.



故 한명수 목사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일시: 2012년 2월 16일(목) 오전 11시 장소: 엘리시안 웨딩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15:3-4)**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

서기 박수용 목사

회계 이정구 목사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여러 동지 목사님들의 교단과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외 임원/이사진 일동 배상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1동 348-21(호용B/D 6층) / TEL: 02)2608-2190, 2198 / FAX: 02)2608-2191



# 설동욱 목사 세복협 24대 대표회장 취임

어려운 교회 여섯 곳을 선정 12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해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세계복음화협의회(이하-세복협,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는 3월 19일(월)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소재 벨엘교회(박태남 목사/본회 사무총장)에서 설동욱 목사(예정교회)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총회에 앞서 설동욱 목사(삼일교회)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권태일 목사(실무회장)가 기도드리고, 서정숙 목사(장애우 본부장)가 출 27:1~8절을 봉독하였으며,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는 “함께 지어갈 제단의 공동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설교했다. 피 목사는 “하나님의 일도 치밀한 계획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있어 균형을 잘 잡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무총재 심원보 목사의 봉헌기도와 본회 사무총장 박태남 목사(벨엘교회)의 광고에 이어 김 조



목사(실무총재)축도로 마쳤다.

이날 50여 명이 참석한 정기총회는 세복협 조직을 확대하고, 자비랑부흥교회, 목회자 부부세미나, 부흥 설교집 발간 등 예년과 같은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각 분과위를 통한 특별활동에 주력해 나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러운교회동기운동 후원금 1200만원은 늘사랑교회(김원욱 목사), 큰무리교회(정종집 목사), 은목사랑비전교회(박정자 목사), 버클리중앙교회(박희종 목사), 수원 샘솟는교회(김경도 목사), 양지선교회(신성한 집사) 등에게 전달했다. 대표회장에 취임한

설동욱 목사는 세복협의 기본원칙으로 열린 마음과 섬김으로 일할 것을 약속하고, 정임자들이 뛰어날 좋은 전통 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세복협의 자질과 성장을 위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능력 있는 회원 확보에 힘을 것과 본회 이름에 걸맞게 한국의 각 지역마다 나라사랑구국기도회와 연합대성회를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7개 지역 마도나를 비롯해 아이티마디에 이르기까지 복음화 대성회를 열어간다는 목표를 정하고, 한국의 미 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에 부흥회 개최를 자비랑으로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눔의 사역을 펼쳐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한영훈 운영총재는 “1988년 세계복음화대성회 이후 세계선교를 목적으로 창립된 세복협이 24년을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체로 발전해 올 수 있어 감사로 전하면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해 바른 목소리를 내고 교회부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는 25일(주일)오후 3시 예정교회 본당에서 많은 교계인사와 동역자, 성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 정주채 목사 “길자연 명예훼손” 피소전 무혐의 처분

작년 연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정주채 목사는 3월7일에 수원지방법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9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기총 탈퇴회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한기총 금권선 거에 대한 발언이 곧바로 길자연 목사에게 전달되었고 바로 다음날

한기총으로부터 정주채 목사를 시발하라는 공문이 총회로 날아들었다.

이에 정목사의 유감표시로 해당자들과 화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지난 1월에 피소 당했으나 용인서부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사무총장 임종수 목사가 총회회의의 녹화동영상을 길목사에게 건네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 기원에 밝혀진 사실이다.

정목사는 지난 1월6일 피소인 신분으로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2월10일에는 이 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월29일에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서를 어제 받았다고 했다. 정목사는 당연한



정주채 목사

결과라며 이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은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고소자 자신은 대표회장을 둘러싼 부정선거로 교계와 일반사회에까지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의 위상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리고, 이를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에 참담한 아픔으로 남아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도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정목사는 “나는 지금 교단 안팎으로부터 이번 사건의 실체와 고소자로 알려져 있는 모씨를 고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각 교단의 총무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며 예수님이 직접 금하신 맹세까지 한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야단이었지만, 솔직히 나는 인간적으로 고만이 된다.”라고 말했다.

## 사)예총연 제184차 기도회 본질을 회복하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기독교 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 제184차 3월 기도회가 본질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3월 2일(금) 오전 11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소재 대전교회(강철 목사)에서 드러졌다.

사)예총연, 기독교 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회장 이순주 목사)는 기교협에배분과총무 남운국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기교협여성분과총무 김윤숙 목사가 기도를, 기도협서기 홍종설 목사는 담전 4:11~13절을 봉독하고, 대전교회 성도들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총회장 강요셉 목사(합동)는 “장애를 극복하면 제 모습 찾는다.”란 말씀으로 설교했으며, 기교협부회장 권용태 목사가 헌금기도를 하고, 사무총장 반정용 목사의 인도로 특별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사)예총연 기독교 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 184차 기도회는 너무도 뜨거웠다. 반 사무총장의 열정 넘치는 찬양인도와 합심하여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용광로에서 무쇠가 녹아내리듯이 열기와 뜨거운 열정 감동으로 은혜였다.

이날 반 사무총장은 1. 그리스도의 사상과 인격을 갖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고전 11:1, 빌2:5), 2.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렴, 결백한 목회자가 되자(갈1:10, 행



4:19, 삼상 12:1~5, 뱀 전 5:2~4), 3. 신행일치의 목회자가 되어 선한 일에 열매 맺으며, 능력 있는 성숙한 성도와 축복 받는 성도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마7:21, 골1:1~2, 고전1:2),

4. 자기 지위나 연령, 이름에 합당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삼상3:18-20, 유1:6, 행13:22), 5. 교회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고전15:3~4), 6.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구원을 위한 구제, 전도, 선교를 위해(마 5:13~16), 7. 지역사회에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며, 이웃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행2:42~47, 12:24), 8. 교회마다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되기 위해(시119:7~10, 담전1:12, 4:5), 9. 온전한 성수주일과 교회부

흥을 위해(느13:15~22, 합 3:2), 10. 나라의 위정자, 안보, 경제, 민족복음화를 위해(담전 2:1~4), 11. 기도회 장소를 제공한 대전교회와 강철 목사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했다.

기자가 많은 단체와 교단 등에서 이날처럼 뜨겁게 기도회를 갖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예총연 사무총장 반목사는 11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특별기도에서 하나 둘 순서를 정하고 찬송과 통성기도로 참석한 주의 종들의 가슴에 목회에 강력한 충전의 기회가 되는 듯 기쁨이 넘쳐나는 기도회가 되었다.

이어 기교협상임총무 강용희 목사가 광고를, 기교협회장 이순주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4월6일 기도회는 4월 9일(금)오전11시 다남중앙교회(김종민 목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 北 ‘광명성3호’ 발사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내국 최근 북한은 위성이라는 명목으로 ‘광명성3호’ 발사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다. 2009년 4월 북한이 ‘광명성2호’를 발사하면서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

켓”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는 2009년 6월 1874호 결의를 통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식량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여 탈북 난민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면 처형을 당하는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식량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2·29 북미 합의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광명성3호’ 발사 계획은 이 같은 합의에 반하는 것이며, 결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로지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의 결속을 꾀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광명성3호’ 발사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2·29 북미 합의는 파기될 것이고 그와 함께 식량지원을 받는 것 역시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북한은 하루 속히 체제 결속을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인권보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

죽 부활



꿈(Dream)

사랑(Love)

행복(Happy)이 넘치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 전원중앙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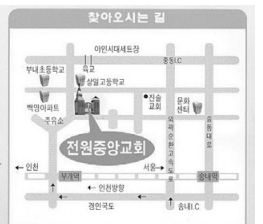
전원중앙교회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사랑이 피어나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전원중앙교회의 미래 1. 성장하는 교회 2. 건강한 교회 3. 아름다운 교회

† 파송선교사 : Johnny, Peligri(필리핀), 장구원(키르가즈스탄), 박해영(일본), 윤성희(호주), 안성희(태국), 방영순(대만), 이원철(캄보디아), C국(Thomas 김)  
† 협력선교사 : Nengzakhai(인도 Manipur) 외 12개국 24명 † 강도사 : 최병철 † 전도사 : 이희순, 김상혁, 권정아, 윤신여  
† 장로 : 표사중, 임철수, 김대중, 박준민, † 전도인 : 서승희 † 성가대지휘:송영자집사, 피아노:조은지, 키보드:서승희전도인

☐ 메텔상서대학 : 매주 토요일 오후 8:30~9:30

| 예배시간표                     | 오전 11:00 |
|---------------------------|----------|
| 주일 1부예배                   | 오전 11:00 |
| 주일 2부예배                   | 오전 1:30  |
| 주일 저녁예배                   | 오전 7:00  |
| 수요일예배                     | 오전 7:30  |
| 새벽 기도회 (토요일은 제외, 월요일은 지양) | 새벽 5:30  |
| 영양 기도회                    | 영 10:00  |
| 주치부(주일)                   | 오전 1:00  |
| 포도밭(주일)                   | 오전 9:30  |
| 학 생 회(토)                  | 오전 4:00  |
| 전년회(주일)                   | 오전 1:30  |



담임목사 정기환(D.Ed., Th.D.)



가정같은교회 ↔ 교회같은교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정기환(D.Ed., Th.D.)

▷ SBS방송설교안내: 라디오 5분 메시지, AM837, FM98.1 매주(목) 저녁8:55분

▷ CBS 인터넷방송 WWW.CBS.CO.KR 24시간 청취가능

▷ JTNTV방송 지지스타임즈 신문방송 이사장(www.jtntv.kr www.cpj.kr)

주 소 : 420-86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79-5(전원마을)

사무실 : 032) 321-9101, 9102, 9109 전화실교 152▷3927

홈페이지 : www.gardenchurch.org

교회동선 : 강원도 양주군 동면 원당리 산43-4번지



## 국제복음선교회 5박6일 태국선교에 힘써

국제복음선교회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빛과소금교회)와 회원 8명은 3월 11~17일(5박 6일)일정으로 태국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를 선교하고 돌아왔다.

I. 선교의 중요성은, 한국계 선교협의회와 미전도종족선교연대는 국제포럼을 통해 전 세계 16,074종족 중 미전도 종족 수는 6,918개로 그 중 80%가 북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넓게 분포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전도 종족은 기독교인 3.0%미만 개신교 1.0%미만의 종족이나 국가를 말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웃나라인 일본, 터키, 인도도 복음화를 2.5%에도 못 미치는 미전도종족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다. 태국 역시 복음화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미전도국가라고 한다.



태국선교를 마치고,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위)

II. 태국의 현황을 보면, 위치 :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중앙, 수도 : 방콕, 언어 : 타이어, 인구 : 6,600만 명(세

체육시설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탁구장, 국제학교 300m 직선거리 도로에 위치

다. 치앙라이 선교센터에는 초·중고등부 학생들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방학이어서 고

장에 가니 석청, 곱감, 밤, 땅콩, 딸기, 고추, 마늘, 생강, 당근, 도마도 등 특히 한국 채소

## 「태국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에 복음전하고 돌아온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 외 8명의 능력의 종들」

계 20위), 면적 : 513,120km<sup>2</sup>, 50위, 종교 : 불교 95%, 이슬람교 5%...

III. 선교지 현황, 1. 치앙마이, 인구 148,477명 면적 40.2km<sup>2</sup>, 태국 3위의 대도시(방콕, 니론라치시마, 치앙마이), 2. 치앙마이 선교센터 현황, 면적 3,000평, 시설, 교회 50평, 학생생활관 30평(20명 숙식가능), 게이트하우스(응접실, 사무실, 호실 5개로 20명 숙식가능), 선교사 생활관 후원자 확보 대지 정비 중 3. 치앙라이 선교센터 현황, 교회 70평, 학생생활관 50평(50명 숙식가능), 식당, 현지인 관리사택 1호, 축산농장, 돼지 16마리, 밭에는 약간의 채소 등

IV. 선교활동 및 비전, 첫날 치앙마이 공항에서 선교센터까지의 거리는 30분으로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꼬공 선교센터까지 6시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고 여독도 쉽게 풀리었다. 선교사역에 단기나마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간 우리는 이튿날 6시 새벽예배참석과 아침식사 등 생활의 동참으로 시작하였다.

함께 예배드린 청년들 20여명은 치앙라이 선교센터에서 양육 받은 대학과 사회 직업진출 예비생들로 신학대 입시준비생 등 태국에 교회와 사회지도자들로 진출할 태국의 꿈나무들이었다. 다음 비전트립코스는 치앙라이 선교센터였

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학기에는 30여명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선교센터에서 숙식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는 교회 부속 생활관에서 유치부 어린이 20여명이 매일 아침 7시 아침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를 동안 그들과 함께 아침예배를 드렸다.

이들은 고산족인 라후족 출신으로 라후족이란 동남아의 한국인이라 불리고 있으며 고구려와 고려의 후손으로 선교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역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선교사들이 20여년전부터 높은 산속 현지에 직접 들어가 고산족 선교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고산족 아시

시장에서 나는 채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치앙마이로 돌아와 대형 야시장에 갔을 때는 고산 야시장에서 못보았던 가지 등 심지어는 고산리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채소들이 있었고 품질도 좋았고 풍요로웠다는 사실이었다. 선교비전은 치앙마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많은 교회지도자 특히 태국에 목회자들을 배출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드릴 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월남, 미얀마 등 여러 주변국의 선교전진기지화 하여 열방을 주님께로 돌려 드려야 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해본다.

## 서인노회 웨신총회 회귀 대환영

다시 돌아온 서인노회! 역시 안정적인 총회에는 웨신총회 뿐!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지난 12일 본 총회로 회귀한 서인노회 노회장 박용순 목사, 서기 서재식 목사, 증경노회장 전예희 목사, 남궁열 목사를 크게 환영했다.

12일 웨신총회 본부에서 성홍경 총회장과 영입위원장 임철환 목사, 부총회장 김준택 목사, 회계 허서인 목사, 총무 신언장 목

사는 본 총회로 돌아온 서인노회 노회장 박용순 목사, 서기 서재식 목사, 증경노회장 전예희 목사, 남궁열 목사 등 양측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자리를 같이하고 크게 환영하면서 가입청원서를 웨신교단에 접수하고 웨신총회는 회귀하여 한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서인노회는 92회기 때 함께 했었으며, 그 후 타 교단으로 떠나 있다가 안정적인 교단은 웨신총회라는 결론을 내리고 노회원들과 다시 돌아온 동역자들이다. 다시 합류한 서인노회 박용순 목사를 비롯 노회원들은 향후 총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해 나간다는 다짐과 함께 약속로서 뜻을 모았다.

## 부산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촛불집회 열어

4월 2일에는 ‘고난주간 광장연합촛불기도회’ ‘Cry With us’ 콘서트 예정

중국정부의 반인륜적인 탈북자 복송정책을 비난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다.

100여개의 부산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북난민 강제복송반대 부산시민연대’는 3월 12일 저녁 7시 부산역광장에서 ‘탈북자 강제복송(北送)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중국영사관 인근에서 개최된 ‘탈북자 강제복송(北送)반대 집회’의 연장선으로 부산종교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동아대 고신대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안용운 공동대표는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이 강제 복송당하고 가족들까지 숙청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중국과 북한의 비양심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에 대



해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규탄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3차례의 복송을 겪으며 4번 만에 탈북에 성공한 김태희 씨, 북한전문가 고동운 목사, 부산외국어대 고트프리드 슈메어 교수 그리고 대학생통합연대 홍지수 회장이 각각 연단에서 서서 북한의 실상과 탈북자들

의 아픔 그리고 북한 인권을 보장하고 한국의 대학생들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주최측은 매주 월요일 부산역광장에서 촛불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4월 2일에는 기독교계와 연합하여 5천명 규모의 ‘고난주간 광장연합촛불기도회’와 함께 차인표 씨 등이 참석하는 ‘Cry With us’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 WCC 반대대책위원회, 20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안 발표키로

WCC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4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3-02차 회의를 갖고, 소위원회를 조직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교단 총회장, 총무, 지도급 인사 및 신학자들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WCC 반대대책위원회장 김영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본격적인 현안 토의에 앞서 회덕성 교수(전 고신대)는 WCC가 표방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융합주의’ 등 WCC의 10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위원들은 ‘WCC 반대대책위원회 추가조직’, ‘WCC 반대대책 세미나 개최 및 홍보물 제작’ 등을 2시간 여 심도 있게 토의했다. WCC 반대대책위원회는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 안건마다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임하기로 하였고, 특히 2,0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안을 차기 회의 시 발표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제23-03차 회의는 4월 16일(월) 오후 2시 총신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살전 3:8)

축부활

안천의 3대 비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변화된 교회



담임 유영섭 목사

| 예배와 교육안내 |                                                                                                                                      |
|----------|--------------------------------------------------------------------------------------------------------------------------------------|
| 예배       | · 주일 낮 예배: 1부/오전9시 2부/오전11시<br>· 새벽기도회: 새벽 5시<br>·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50분<br>· 구역 예배: 각구역별로<br>·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br>· 수요기도회: 오후 9시           |
| 주일학교     | · 유 치 부: 유치부실(지하1층)오전11시<br>· 청소년부: 청소년부(지하2층)오전9시<br>· 아 동 부: 아동부실(지하1층)오전9시<br>· 영 아 부: 오전 10시30분(1층 영아부실)<br>· 새 가 족: 주일 오전10시20분 |
| 평신도교육    | · 성경연구: 화요일 오후8시<br>· 성경일독: 아동부실 주일 오후 1시<br>· 베델성경: 목요일 오전10시,오후8시                                                                  |

(445-380) 경기도 하성시 안녕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

###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총회장 유영섭 목사 안천교회



부총회장 지태일 목사 한민교회



부총회장 박종선 장로 동천교회



서기 강상호 목사 대한교회



회통서기 이재성 목사 산천교회



회계 위용준 장로 안천교회



부회 김선길 장로 대한교회



시합부장 김정복 목사 송덕교회



시합부장 박정복 장로 영입교회



선교부장 김동민 목사 창대교회



선교부장 김일수 목사 동진교회



선교부장 김준초 장로 동천교회



교육부장 유상호 목사 연평교회



교육부장 서병일 목사 공덕교회



고시부장 지태일 목사 새빛중앙교회



재단부장 김인준 장로 송덕교회



재단부장 추영조 장로 신천교회



재단부장 윤정현 목사 해방교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며 총회와 노회 전국교회 위에 부흥하며 성장하는 축복이 가득하시길...

총회장 유영섭 목사 외 임원 일동 배상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Tel:(02)845-7711 / Fax:(02)844-7711  
H-page 문의:(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Copyrights(1)2008,All Rreserved. 백암수양관 031)333-8047



## 지저스타임즈 대구서 2012 제2차 이사회 열어

지저스타임즈(이사장 정기환 목사)는 3월22일 정오 대구시 동구 송사로 소재 행복샘교회(담임 목사 박수영)에서 2012년 제2차 이사회를 갖고 국내 20여 지사와 해외 25개 지사 운영에 대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뜻을 같이하는 토론의 장이되었다.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인천지사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대구지사장 박수영 목사가 기도를 드렸고, 김현지사 전성민 목사의 특송이 있는 후 이사장 정기환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는 열 5:15~21절의 말씀을 인용“문서 선교의 기회”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사장 정기환 목사는 지저스타임즈가 해외 25개국, 전국 20개 지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문서선교야말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시대적 문서선교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사장들이 사역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특별기도 순서로 1.지저스타임 및 WWW.JTNTV.KR JTNTV 방송과 크리스찬 포토저널(WWW.CPI.KR) 포토저널방송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2. 25개 해외



지사를 위하여 기도를, 3. 전국 20개 지사발전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박양우 목사(중부지사장)의 봉헌기도가 있었으며, 대표이사 정기환 목사의 신문사 소식 및 인사가 있었다.

아울러 대구지사장 박수영 목사는 대구지사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인천지사장 광영민 목사, 합천지사장 이성우 목사, 중부지사장 박양우 목사, 포항지사장 이기학 목사, 광주지사장 정대성 목사, 강원지사장 박영남 목사 등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와 그 외 지사는 노회와 대심방 등으로 위임을 알려

왔으며, 해외 지사와 선교사들의 보고가 있는 후 이사장 정기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예배를 마치고 대구지사 내외와 성도님들의 웅성한 식사 대접을 받으며, 2달에 한번씩 만나는 이사장들 간에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2부 순서로 대표이사 정기환 목사는 신문사가 전국 지사를 순회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반면 그 지역 유지를 비롯해 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감사했다. 또한 문서선교의 기회를 살용하는 뜻에서 본 신문방송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있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마음껏 담대함으로 서로가 연합되고 합심 단결하여 힘차게 전진해 가자고 말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본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언론지로서 성령충만함 속에서 편집되는 언론지,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는 문서선교 언론지가 되는데 확신을 갖자고 했다.

본지 언론인 여러분은 기자로서 깨끗해야 할 것과, 손 내밀고 돈 몇 푼에 인격이 추해지고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 하고, 만일 그러한 언론관계자가 발견되면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언론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괜은 칼보다 무섭고 힘이 있다. 깨끗하게 필적의 붓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에 부끄러운 점이 없는 신문사요 관계자가 되자며 부탁했다. 한편 5월 3차 이사회는 충남 홍성에서 가질 예정이다.

## 시국 현안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 대표 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에 대해 1,200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며, 이 나라가 올바른 가치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영과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기도를 함께 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1.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와 국방 교역로 확보, 해양자원 보호 등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특별히 주변국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며 호시탐탐 우리 영토에 야욕을 드러내는 이 때, 자주국방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거점이다. 이미 환경영향 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모든 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더는 이를 반대한다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 선동을 일삼는 행위는 속히 중단돼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를 '해적(海賊)기지'라고 폄하하며 군 당국과 장병들을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한미 FTA 발효를 환영한다. 자원과 영토가 부족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오직 활발한 무역 뿐이다. 세계적 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수출입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관계 당국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운용의 모를 살려야 할 것이다. 한기총은 대한민국이 15일 발효되는 한미 FTA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

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부를 나눔으로써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길 열망한다.

3. 탈북자 강제복송을 반대한다.

한기총이 거듭 밝혔듯,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의 폭압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난민들로서,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혹은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난민협약 제33조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명심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국으로서, 무고한 생명을 사지로 밀어넣는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중국의 이에도 관할권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

제주도 남단 마라도로부터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에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나라 관할 수역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에도를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한 것은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은 이전에도 동북공정 등 역사와 영토 문제 등에 있어 종종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동북아와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중국 정부는 진정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대국이 되기 위해, 보다 신사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렇게 주권과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확고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5.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교육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기에, 백년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됐을 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등의 항목을 보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도 잘못된 가치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각계의 지적을 정책당국은 겸허히 수용,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은 이미 입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운동에 강력히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6.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환영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와 핵물질 안전관리 등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핵안보 과제들에 대해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 및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처럼 중대한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 대표들이 의장국으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적극 지지한다.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 세주부협 칠봉산 기도원 2주 연속 연합성회 가져

### 칠봉산기도원을 치솟는 용암처럼... 능력 받는 세주주부협 성회

세주경영공부흥사협의회(이하 세주부협)는 동두천 소재 칠봉산 기도원(원장 오성욱 목사)에서 지난 두 주간 연속“성령 불세례 체험 대성회”를 열어 기도원을 찾는 자들마다 문제 해결과 은혜를 받고 하산했다.

칠봉산기도원은 세주부협 소속 강사진들이 시간마다 복된 말씀을 증거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또한 세주부협 소속 찬양 사역자들의 특송 및 위임을 통한 분위기 넘치는 은혜를 끼쳤다. 산속인 관계로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할지라도 간섭받지 않고, 또한 집회 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기도도 그 열기가 식을 줄 몰랐다.

성회가 성전을 가득매운 성도들로 성회를 이루었다. 칠봉산 기

도원은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맑은 공기와 도심에서도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 교통도 용이하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있어 참 좋았다.

또한 기도원 뒷산이 등산로이자 산악자전거 코스가 조성되어 있고 기독교 등산객들이 들러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별장과도 같았다. 성회에 참석하여 잠시 쉼을 내어

산책하며 몸과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개원하여, 3천여 평 부지에 본당, 중 예배당, 2층으로 된 식당 및 소 예배당을 지어놓고 매주 국내외의 개인강사와 단체를 초청, 성회를 열어가고 있다.

세주부협은 이번 칠봉산 기도원 연속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사명 감당에 힘썼다. 세주부협은 2012년 8월이면 7주년을 맞는다. 순수한 부흥사상을 지향하며 성회를 주관하고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한 기도원에서 단회에 그치지 않고 몇 개월 내지 심지어 1년여까지 성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진다. 세주부협은 순수복음, 순수한 부흥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성을 일깨우는 부흥사 단체이다.



### 축 부 할

##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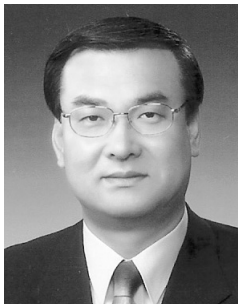
주일에배 오전11시오후2시  
심방일 오후8시금요일도회 저녁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렐넷 http://lov153.cafe24.com

### 축 부 할

##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 요일 | 예배    | 시간            | 장소         |
|----|-------|---------------|------------|
| 주일 | 보혜배   | 1회 오전 7시 30분  | 3,4층 대 예배실 |
|    |       | 2회 오전 11시 30분 | 3,4층 대 예배실 |
| 주일 | 저녁예배  | 오후 7시         | 3,4층 대 예배실 |
|    |       | 오후 7시 30분     | 3,4층 대 예배실 |
| 주일 | 수요예배  | 저녁 9시 30분     | 3,4층 대 예배실 |
| 주일 | 금요예배  | 저녁 9시 30분     | 3,4층 대 예배실 |
| 주일 | 새벽예배  | 오전 5시         | 3,4층 대 예배실 |
| 주일 | 청년부예배 | 오후 5시         | 2층 영산강홀    |
| 주일 | 대학부예배 | 오후 5시         | 5층 두란노홀    |
| 주일 | 유치부   | 1회 오전 9시 30분  | 2층 새홀실     |
|    |       | 2회 오전 11시 30분 | 2층 새홀실     |
| 주일 | 유초등부  | 1회 오전 8시 30분  | 3,4층 대 예배실 |
|    |       | 2회 오전 11시 30분 | 3층 아동센터    |
| 주일 | 중등부   | 오전 9시         | 3,4층 대 예배실 |
|    |       | 오후 2시         | 2층 영산강홀    |
| 주일 | 고등부   | 오전 11시        | 2층 영산강홀    |
|    |       | 오후 1시 30분     | 5층 두란노홀    |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 축 부 할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광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요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 축 부 할

##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 노(老)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주택연금

지난 1일부터 신규 신청 건부터, 나이에 따라 수령액 달라



〈사진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제9권 주거신문〉

은퇴를 앞둔 50~60대 베이비부머는 700만 명 이상이다. 이 세대는 자녀의 교육에 매진하여 노후준비가 미약하고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집 한 채를 담보로 다달이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가입자가 7,000명을 넘어섰고 보증액도 10조 원을 돌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노(老)테크’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주택연금이 지난 1일부터 신규 신청 건부터 나이에 따라 월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0~63세 일반주택 소유자가 2월 이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1월 가입보다 0.1~1.5% 늘어난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일반주택

소유자가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는 월 70만9천410원을 받지만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할 때는 1만660원(1.5%) 늘어난 월 72만70원을 받게 된다.

반면 64세 이상 일반주택 소유자의 신규 월지급금은 종전보다 0.1~7.2%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만 70세 고객이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2월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106만4천880원에서 103만9천550원으로 2만5천330원(2.38%) 줄어든다.

한편 노인복지주택을 가진 60~69세 일반주택 소유자가 2월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현행보다 0.4~5.1% 늘어난다. 70세 이상 신규 가입 일반주택 소유자의 월지급금은 0.1~6.5% 줄어든다.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나 신규가입자만 해당된다. 한 번 가입하면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계속 산정되는 것이 주택연금이다. 본인의 나이와 보유주택 종류를 고려해 좀 더 유리하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음은 주택연금에 대해 자주하는 문의사항이다. Q&A로 기본적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 주택연금 기본적인 Q & A

### ❶ 가입대상은?

주택연금은 정부보증 역모기지론으로 지금은 주택소유자(본인)와 배우자의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60세가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다.

### ❷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하고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안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주택만 해당된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한다.

### ❸ 임대와 매매는?

주택연금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주택 일부를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가능하다. 매매도 언제든지 가능하며 새로 산 주택으로 대체하면 된다.

### ❹ 연금수령방법은?

연금수령 지급방식은 종신휘 · 종신휘합형이 있다. 종신휘합지급방식은 가입 전 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상계처리하고 대출이 없으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입자가 수시인출한도를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수시인출금 한도가 높게 잡히면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또한 연금수령방법은 사망할 때까지 동일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정액형과 매년 연금액이 증가하는 체증형, 줄어드는 체감형이 있다.

### ❺ 가입자 모두 사망하면?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를 통해 처분한 후 상속인에게 연금액을 정산한다. 만약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잔존가치가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장수로 인해 그 동안 받은 연금수령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연금액 정산 시 주택 잔존가치가 남아있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또한 상속인이 집을 상속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받은 연금수령액을 모두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 ‘노(老)테크’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주택연금과 Q&A (국민연금의 모든 것)

# 국민연금, 이렇게 바뀐다!

## 급여분야 개정사항

1. 정기연금 지급일이 변경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5일에 연금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매달 말일에 지급되죠? 국민연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달 말일에 나와서 공과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매월 말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2012년 5월 지급분부터는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25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매월 말일 각종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청구 요건 지급요청일이 25일 직후라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개정이다. 앞으로는 25일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함께 매달 납부할 공과금 걱정도 함께 날려버리세요 ~~~

2.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지급연령이 연장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연금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 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자녀 및 손자녀도 포함이 되는데, 2011년까지 18세 미만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했다. 따라서 1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후순위 유족에게 그 수급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2012년 4월 1일부터는 자녀(손자녀)의 지급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유족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3. 노령연금 수급 연기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이상 65세 미만)만이 가능하였다. 즉,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지만 만 65세 이전 월평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수급권자만이 노령연금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 7월 1일부터 모든 노령연금수급권자(60세 이상 65세 미만)로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을 연기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향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연령도 달라질 예정이다

4. 노령연금 연기에 따른 가산율이 높아진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수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연금 연기에 따라 1년당 연금액의 6%(월 0.5%)가 가산되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가산율이 높아져 연금 1년당 연금액의 7.2%(월 0.6%)가 가산되어 5년 연기 시 연금액을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다.

5. 유족연금 승계사유가 명확화 된다.

2011년까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승계사유는 ‘배우자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는 경우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수급권 승계’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멸’이나 ‘정지’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라 수급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수급자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배우자 수급권이 제 75조에 따라 소멸(사망, 재혼)하거나, 제 76조에 따라 정지(소재불명)되는 경우에 한해 수급권 승계’로 명확화 된다.

〔국민연금카페 대학생기자 이소영〕

#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7회 자랑스러운 연세인연신원상 시상식  
부흥사부문 김영남목사외 7명 수상



연세대학교연합신학원 총동문회(총동문회장 김현수목사)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자랑스러운 연세인연신원상에 목회자부문대상을 비롯해 5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수상식을 거행했다.

총동문회장 김현수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신원상 시상식은 연신원 출신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함께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회를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식에 앞서 설교를 맡은 김성광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통치 하신다’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작금의 한국교회는 위기의 시대이며, 오늘의 수상을 통해 지금까지의 사역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자”면서 “영적인 기관인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연신원의 동문들이 더욱더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신학대학원장 이양호박사는 “7회째를 맞이하는 시상식을 통해 동문들의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 오늘날 연신원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참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 한국교회는 성장할 것이며, 연신원의 회원 목회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축사를 전했다.

사회봉사부문대상자인 장영기목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흥사부문 수상자인 김영남목사는 “연신원의 동문으로 이번엔 수상하게 됨을 감사하며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신원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목회자부문대상 이명운목사(목포합동교회), 최중훈목사(청

람산교회), 부흥사부문대상에 김영남목사(인천새소망교회), 김요한목사(축복교회), 사회복지부문에 이혜인목사(낙원전원교회), 사회봉사부문대상에 장영기목사(서울중앙장로교회), 노인복지부문에 양명환목사(횡성감리교회), 교육부문대상에 김승자목사(햇빛중앙교회).

## 축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 G I R O U N C H U R C H a



담임 정일량 목사

표어 : **충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요16:16)**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09:30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영락원예배 오후 3:00 영락원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목요치유예배 오후 8:00  
청소년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학교예배 오전11:00 중보기도모임 월 오후 10:00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032-814-7720 / 팩스 032-714-3131 010-9450-7591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향기로울빌딩 9층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 축 부 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목포만나교회**  
**웨스트민스터 목포신학교**

201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나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상연 박사 연구원장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 학장

### 1. 모집과정

| 과정  | 구분       | 수업연한 | 전망                          | 비고                                                   |
|-----|----------|------|-----------------------------|------------------------------------------------------|
| 연구원 | 목회박사(MD) | 전    | 4학제 대교신학대학원장 추천 1차시험 합격자    | 주간: 3월 10일(토) 9:00~12:00<br>야간: 1월 10일(토) 9:00~12:00 |
|     | 목회박사(MD) | 전    | 4학제 대교신학대학원장 추천 1차시험 합격자    |                                                      |
| 신학원 | 신학박사(MD) | 전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인정          | 주간: 3월 10일(토) 9:00~12:00<br>야간: 1월 10일(토) 9:00~12:00 |
|     | 신학박사(MD) | 전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인정          |                                                      |
| 신학원 | 신학박사(MD) | 전    | 대학원 졸업 또는 1차시험 합격자 2차시험 합격자 | 신학박사(MD) 1차시험 합격자                                    |
|     | 신학박사(MD) | 전    | 대학원 졸업 또는 1차시험 합격자 2차시험 합격자 |                                                      |

### 2. 전형일정

원서접수: 연중 계속

원서교부: 본교 교무과 (031)242-1617

###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사진 4매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조광표 박사(MD) 연구원: 모상연 박사(M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신동 1236-4번지 ☎031)242-16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순천시 동외동 191-2번지 / 전화 061)744-7704, H 010-94049-3731

전남 목포시 연신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화정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핸드폰 : 011-631-1977

## 축 부 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이중 (본지, 상임이사)

장로 : 신호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 MTR-school 성경연구원 매수(화)특강(2)

「김제임스성경」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Traditional Masoretic Hebrew Text)이다. '마소라'라는 말은 주후 10세기경에 처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주전 400여년 전부터 사용된 말로서, "전해져 내려오다"란 뜻의 '마사르'(masar)에서 파생된 말이며, 현재는 "전통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마소라'라는 말은 명사로 쓰일 때에 '히브리어 자음 본문'(Consonantal text)을 보존해온 사람들을 가리키다.

'히브리어 자음 본문'은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본문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WATER'를 보면, 그 안에 'a'와 'e'라는 모음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히브리 단어였다면, 모음이 없는 'WTR'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물론 마소라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 단어에 다른 모음들을 넣으면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을 갖는 'WAITER'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주고 단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소라들은 모음 표시를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자음 밑에 있는 'ל'는

원장 김수정 교수



'아'(ah)라는 발음을 갖고, 점이 세 개 있으면 '에'(eh), 점이 두 개 있으면 '아이'(ay), 그리고 점이 하나 있으면 '에에'(ee) 등으로 발음된다.

이같은 기호들은 '읽는 것을 도와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마트레스 렉션스'(matres lectiones)라고 불리며, 이런 기호들을 통해 이방인이나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단어를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WATER'와 'WAITER'는 이런 기호들에 의해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소라들은 이처럼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하고 거기에는 모음 부호를 달아준 사람들이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일이 매우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마소라들은 주후 500-1000년경에 매우 많이 존재했으며, 주후 600-700년경에 자음 본문에 모음 부호를 달아 표준화

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이 만든 본문을 '마소라 본문', 즉 '전통 본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김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이 '마소라 본문'을 구약성경의 본문으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김제임스 홈페이지 성경 부록 P2~3)

위에 살펴 본바와 같이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이 잘 보존하여 왔다. 히브리즘에 의하여 분류된 구약성경 분류는 구약을 3부분으로 첫째부분이 토라(모세오경)는 모든 원리를 기록된 5권으로 B.C. 400년경 학사 에스라에 의하여 바벨론포로에서 돌아 온 후에 편집되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원리로만을 알수 없으므로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네비임(선지서)가 B.C. 200년경 편집되었다. 셋째부분은 기록된 성경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여 살아가는가를 기록한 케투빔(성문서)부분으로 A.D. 100년에 랍비 아카바에 의해 편집되어 구약을 24권으로 편집하여 구성한 것으로 전해 내려온다.

70인 역본의 구약성경 분류는 헬레니즘의 영향력과 년대 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마라나티!!!

##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사순절

성경에는 누룩에 관한 글이 자주 나옵니다. 누룩은 오늘날로 말하면 효모나 이스트로써 빵을 부풀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룩에 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누룩을 제거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때가 있음을 신약과 구약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은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집안 곳곳을 자세히 뒤지면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한 대청소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써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밖의 누룩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누룩이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표로써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에 각 가정마다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장자의 죽음으로 이집트를 칠 때에 어린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을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출 12:1~14).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만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그럴듯한 이론에 절대 빠져 들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인류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세계 모든 종교의 대 통합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함께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드럽게 하는 누룩의 특성을 이용하여 평화를 가장하여 고난의 예수를 부인합니다. 누룩의 부풀리는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룩은 철저히 제거해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외

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 안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강조한 부분으로 율법주의를 비롯한 거짓 신앙을 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율법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무시합니다. 대부분 율법주의를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계명도 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마 5:19).

그런데 율법주의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우리는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 하나지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거나, 복이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략...

www.jtntv.kr에서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성준 목사

· 감리교 신학대학교 목회 신학대학원 졸업(목회학 석사)  
· 전 부천시 기독교 약사회 회장



## 설교

## 강해 보배로운 시련(6)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순교자로 확정된 자의 믿음이며 Exodus(엑소도스)신앙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15절의 "내가 떠난 후에라도"는 헬라어 원문에 Exodus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음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Exodus, 즉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Exodus신앙은 예수님의 경유에서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28~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데, 원문에는 십자가상의 죽음이 육신의 고통 중에 살해당하는 죽음이 아닌 Exodus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제물로 달려 죽으셔서 아버지 나라에 영체로 들어가신 예수님께 온 만물들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피조물들

주변 사람들도 역시 보석의 신앙이 되어갑니다.

죽음 앞에서의 안식, 담대함의 믿음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지닌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순교(행 12:6)당할 날이 바로 이튿날로 다가왔습니 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그의 열구리를 쳐서 일으켜 깨울 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이 된 보배로운 믿음 곧 Exodus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5절 이하에서 죽음을 무릎 쓰고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으며, 20절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지닌 베드로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5장 17~42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 순교의 죽음을 Exodus로 여기는 믿음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회개하며 구원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앞에 놓인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의 Exodus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베드로에게도 순교의 죽음은 Exodus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Exodus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후 1:15)에 Exodus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순교하여 하나님 나라의 최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 예수와 동일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이것이 Exodus신앙입니다.

따라서 보배로운 믿음이란 순교할 자로 기쁘게 살다가 순교하되, 이 죽음을 Exodus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협력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순교할 자로 확정된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벧후 1:19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계 14:13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 20:4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을 통치하더라."

베드로의 경우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보배로운 목격과 시련을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4부 보배로운 그릇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

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딤후 2:20~21)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석이심을 보여주셔서, 베드로 자신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목격하고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믿고 살아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인 베드로로 완성되기까지 보배로운 시련을 필연적으로 거쳤으며, 보배로운 시련을 통과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순교할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보배로운 그릇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20~21절 말씀에

귀한 그릇(보배, 티메)은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여질 때의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석 그릇으로 되어져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의 큰 집, 즉 교회에서 금과 은 또는 나무와 진흙의 그릇에 대한 구별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열매 맺고 그 중심으로 사는 자는 나무 그릇이며, 자신의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진흙그릇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불에 들어가면 금은 그릇은 타지 않으나, 진흙과 나무그릇은 불 타버립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아간 자, 말씀에 의해 믿음으로 산 자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 태워지지 않습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령교회 담임  
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 축 부 활

##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 축 부 활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희망원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rnh1091@hanmail.net

## 축 부 활

## MTR-school 성경연구원

구약(벤아세르 MT)과 신약(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 계시록원전
- 히브리어문법
- 헬라이어문법(전 준덕 교수)
- 알기 쉬운 52주 헬라이어문법 저자 강의
- 영어문법
- 계시록

원장 김수정 교수  
(본지 운영이사)

- 일시: 매주 (화) 오전 9시부터 강의
- 장소: 송파구 오곡동 118-20(2층)
- 문의: 02-409-3601, 070-4100-3601
- 후원: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축 부 활

바른성경선교회

## 한빛 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특별예배기니

강사 송기태 신학박사  
(본지 교론)

## · 강의내용

-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령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 참석자 전원에게 「연약의 무리」 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견용)



· 부활절 메세지 ·

##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며”

해마다 부활절이 다가서면 남녘에 서는 봄소식이 북상하면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때 아닌 감기로 심하게 고생을 하게 된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교회마다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특별새벽기도를 하며 부활절 연합예배 등으로 연례적인 행사 생색내기엔 바쁘기만 하다.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실존적인 나의 진정성과 내 삶의 정체성이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4박자 스텝으로 밟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박자와 리듬이 되어 세상을 보다 혁신하고 희망의 따뜻한 온기로 채울 수 있으리라 작은 바램을 가져본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상황을 외면하고 단순히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만을 묵상하고 회자하는 것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사순절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며 부활절 삶은 계란에 소금 뿌려 배를 채우는 것으로는 아무런 부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탈북하다가 잡히는 날에는 바로 총살을 당할 뿐 아니라 3대가 멸살되는 비극이 북쪽 하늘의 먹구름이 되고 재가 되어 남녘에 흑비를 뿌리고 있다.

다음달 12일부터 16일 사이에 평

예장웨신총회총회장

성흥경 목사

송석교회 담임



안북도 철산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3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시작되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가며 3월26일은 천안함 사고 2주년이되었다. 4월 11일에 있을 제19대 총선이 2012 사순절과 부활절을 퇴색시키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는 구럼비 바위가 폭악에 날려가고 있다. 이 시대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찢겨나가는 심장으로 이 시대를 고뇌하며 기도하고 묵상하자. 탈북주민의 눈물과 비명소리를 들으며 못 박히고 강경의 통곡과 절규에 심장을 터뜨리셨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자. 이 시대 우리 이웃의 아픔과 비통 속에 투영되는 갈보리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엘리엘리라마사바다니를 듣지 못하면 사순절과 부활절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는 무관함을 기억하자.

##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영광과 축복 중에 축복인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이 다가 왔습니다. 고난 주간하면 금식만 생각하고 부활주일 하면 계란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의 본래적 의미는 이 세상이 죽음의 세력 아래 있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필요한 세상임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드러내시고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이들이 있게 하였고 급기야 우리들까지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주간은 행동을 자제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조금이나마 고난을 심겨주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골 1:24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라고 선언하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생이긴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 같이 내가 타인의 고난을 대신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답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과 주께서 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본지 사장



한 헌신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각자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최선의 헌신하는 지를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바로 잡아 나가면 이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매주일이 부활 주일임을 잊지 말고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주일만 부활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 날 모여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뜻을 기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을 그런 부활의 의미로 가득한 날로 보내며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이들은 결국 매일 매일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같이 고난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한번 깨달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를 담게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삶이되기를 소망합니다.

## 전승주 선교사 태국선교소식 간절한 도움요청

주님께서 인도하신 몽족마을과 그 외에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달려가 보니 너무 멀어 망설여질 만큼 강원도 산골짜기 인접마을 보다 더 깊은 곳이었다. 30여 년 전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여 조그마한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마을에 들어선 우리들(선교사)보더니 반가워 맞이한다.

지붕은 녹이 나서 비가 새고 판자는 썩어서 밑이 흔들거렸다. 난방유이 초초초통한 아이들을 보니 옛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빵 먹고 싶어서 그 옛날 교회에 들어섰던 기억들이 살아났다. 그때 "바로 이거야! 주님의 마음이 와 닿았다 어린이를 향한 비전이 보여 졌다. 몇 십 킬로를 가야 시내가 있는데 외지에서 사람이오니 많은 어린이들이 몰려온다.

우리나라 60년대를 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집집마다 돼지 닭을 키우며 사는가 하면 땅들이 붉은 황토 흙으로서 웃이며 발바닥이며 어린이들이 뒹굴며 노는 곳에 황토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왕복 14시간이 소요되지만 오늘은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 어린이를 초대하였다. 무용과 노래 게임 등 곱게 화장을 한 아이들이 선물들 받아주고 기뻐한다. 처음 나오는 아이들 쑥스러워 주눅 주눅 걸도는 모습이 어찌 그리 나를 닮았는지 사랑스럽기만 하다. 예배를 마치고 돼지고기 국물에 국수 한 그릇씩 받아주고 후르룩 잘도 넘어간다. 넉넉하게 챙겨주지 못해 국수를 먹이는 것이 어찌 미안스럽던지.. 문명을 접하지 않는 어린이들.. 입을 옷조차 변변치 못해 그동안 모두 아두었던 한웃가지를 나누어주었고, 하



이-파이브 수학교실을 열어 수학 능력시험으로 상품도 주며 방과 후 교실을 매일 운영 하고 있다.

\* 2년 전부터 성전건축을 놓고 기도만 하면서 어찌해야할지 의논하던 중 1월14일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인들(제직들)과 의론 끝에 성전건축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저희들은 지켜만 보았을 뿐!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으로 본다. 늘고도 넓은 양철지붕과 판자로 지

어져 비가 새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 새 성전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회의를 마치고 현장에서 밤늦은 시간에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예배 후 다함께 위 사진과 같이 새로 지은 교회 터에 대나무 말뚝을 박고 또 기도했다. 아울러 태국선교에 사역자들이 담대함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국선교사 전승주, 순호자 본지 기자

**축 부 활**

# 설두광주리기도원

○ 선한목자부흥사회대표회장

○ 열두광주리기도원원장

열두광주리기도원  
원장 김경호 목사

| 열두광주리기도원 김경호 목사 집회일정 |                                    |                                         |
|----------------------|------------------------------------|-----------------------------------------|
| 2012년 2월             | 6일~9월<br>13일~16일<br>20일~23일<br>26일 | 영성기도원<br>열두광주리기도원<br>음성생수기도원<br>보이스사랑의집 |
| 2012년 3월             | 5일~8일<br>12일~15일<br>19일~22일<br>29일 | 열두광주리기도원<br>백함중앙교회<br>구미갈멜산기도원<br>행복한교회 |
| 2012년 4월             | 2일~5일<br>7일~11일                    | 열두광주리기도원<br>필리핀부흥성회                     |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350**  
**H.P:010-8411-0191, TEL:031-535-6975**

**축 부 활**

#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오종실

| 2012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       |
|---------------------|--------|-------|
| 구분                  | 시      | 간     |
| 주일 낮 예배-1부          | 주일 오전  | 9:00  |
| 주일 낮 예배-2부          | 주일 오전  | 11:00 |
| 주일 밤 예배             | 주일 밤   | 7:30  |
| 수요 밤 예배             | 수요일 밤  | 7:30  |
| 금요영성대림회             | 금요일 오전 | 9:00  |
|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 11:00 |
| 어린이 교회학교            | 주일 오전  | 9:00  |
| 중·고등부               | 토요일 오후 | 4:00  |
| 대학부                 | 토요일 오후 | 6:30  |
| 청년회                 | 토요일 오후 | 6:30  |

| 문 화 교 실 |          |                          |
|---------|----------|--------------------------|
| 순번      | 구분       | 시 간                      |
| 1       | 초년사모아카데미 | 월요일 오전 11:00             |
| 2       | 백목교실     | 수요일 오전 10:00             |
| 3       | 학구교실     | 수요일 오전 12:00             |
| 4       | 복자훈련     | 주중 정한시간                  |
| 5       | 성도회 축구교실 | 주일 오후 3:00               |
| 6       | 음악교실     | 주일 오후 2:00               |
| 7       | 웃음에      | 주중 매일                    |
| 8       | 세력단련     | 주중 매일                    |
| 9       | 종성대림회    | 주중 매일                    |
| 10      | 종성성경대학   | 오전반 (수, 목)<br>오후반 (월, 목) |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림리 952 번지**  
**전화: 041 - 634-0441( 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축 부 활**

#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 선 목사

기쁜

시간

정소

기쁜

시간

정소

|         |                     |          |       |               |          |
|---------|---------------------|----------|-------|---------------|----------|
| 유치부     | 주일오전 9:00           | 4층       | 유치부   | 주일오전예배 11:00  | 2층       |
| 유년, 초등부 | 주일오전 9:00           | 나사렛성전    | 청년부   | 주일찬양예배 오후2:00 | 2층       |
| 중고등부    | 주 일 오후3:30          | 대예배실     | 수요기도회 | 수요일 저녁 7:00   | 2층       |
| 청년부     | 토요일 오후5:00          | 4층 나사렛성전 |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00   | 4층       |
| 성경대학    | 금요일 오전10:00, 오후8:00 | 2층 대예배실  | 새벽기도회 | 매 일 새벽 5:00   | 4층 나사렛성전 |
| 각 셀 예배  | 셀 가정별               |          |       |               |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축 부 활**

#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www.scogop.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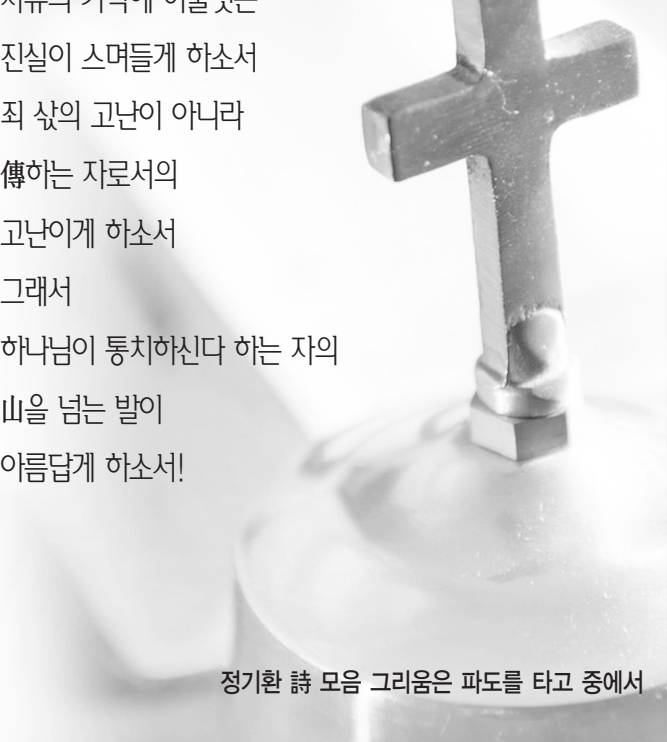
| 예 배 안 내  | 요 일     | 시 간      | 장 소     |
|----------|---------|----------|---------|
| 주일 예배    | 주 일     | 오전 11:00 | 본당 (2층) |
| 찬양 예배    | 주 일     | 오후 3:00  | 이전 수련원  |
| 유치부 예배   | 주 일     | 오후 1:30  | 기도실     |
| 초등부 예배   | 주 일     | 오후 1:30  | 본당 (2층) |
| 중·고등부 예배 | 주 일     | 오전 9:00  | 지하 성전   |
| 청년대학부 예배 | 토요일     | 오전 6:30  | 지하 성전   |
| 스페인어 예배  | 주 일     | 오후 1:30  | 지하 성전   |
| 새벽 기도회   | 매일(월~금) | 오전 5:00  | 지하 성전   |
| 수요 기도회   | 수요일     | 오후 7:30  | 지하 성전   |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 오후 9:00  | 지하 성전   |
| 2시 기도회   | 매일(월~토) | 오후 2:00  | 기도실     |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이정민 목사(Mi nis ter)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정기환 詩 모음 그리움은 파도를 타고 중에서



## 대한신학대학원 6대총장 황원찬박사 취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6대 총장으로 황원찬 박사가 취임했다. 이와 관련하여 5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강당에서 총장 취임식 및 입학식 개강예배가 열렸다. 취임식에는 윤호열 이사장, 황수원 부총회장(대신), 최승영목사(대신 증경 부총회장), 이재욱목사(대신 전 유지재단이사장) 등 교계 인사들과 학교관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원찬 박사는 취임사를 통해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 각오로 시작했으면 한다”면서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성과 밝은 미소를 가지자”고 말했다. 이어 “신입학우, 재학생 학우들

은 학교를 통해 꿈을 꾸며 비전(vision)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며 “개척자의 정신과 각오로 현재와 다음세대를 준비하자”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학교에서 추진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추진되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자신에게 진실하고 타인에게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먼저되자”고 학생들과 학교 교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윤호열 이사장이 황원찬 총장에게 취임패를 전했고, 이재욱목사가 권면율, 장세일 총회장(개혁)을 대신하여 개혁측 총무가 축사를 대신했다. 이재욱 목사는 “아주 먼 길을 돌아 제자리에 다시 돌아왔다”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가 설립된 초기 정신과 목적을 잘 이어갔으면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학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길 당부드린다”고 권면했다.

총장취임식에 앞서 열린 개강예배는 김계봉 교수의 사회로 주계언 목사(목화대학원장)가 기도를, 황수원 부총회장이 ‘영적 지도자의 특성’이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황 부총회장은 “이곳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은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며 “사명자는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도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며 “지금 이 사회가 공짜를 좋아하는 문화에 빠

져 있는데 우리는 그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랑은 수고와 있어야 한다”며 “아름이 사랑하는 여자인 레아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수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원찬 총장은 장에스더, 김재원 학우에게 특별장학생 증서를 수여했고, 성적장학생 수석으로 홍현정 학우와 차석 조규대 학우에게도 각각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최승영목사(대신, 증경 부총회장)는 학생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면서 “학교에 그간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새로운 총장님과 신입생들을 보니 소망이 넘친다”고 전했다.

## 우리 민족에 ‘여호와 이레’ 축복 임하길

이대통령, “어려운 시기 성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된다”  
제44회 국가조찬기도회. 정계, 교계지도자 1천여명 참석

제44회 국가조찬기도회가 8일 이명박대통령 내외와 정계, 교계 지도자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노승숙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시종일관 엄숙하면서 경건한 가운데 드러졌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우여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는 복되며 매년 국가조찬기도회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정의가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그리스도인 모두가 기도하자”고 말했다.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나선 오정현목사(사랑의교회)는 창세기 22장 13~18절과 롬 4:16~1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한민족을 향한 여호와와 이레의 하나 됨’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세기는 기본권이 변하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중동과 유럽의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의 소득과 소

의 양국화가 심화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민족과 국가지도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명박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버팀목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그 바탕에는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며 남은 대통령이 임기동안 따뜻한 사회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가진 특별기도시간에서는 대통령과 국가발전을 위해(이경제의원), 경제변명과 민족회합을 위해(박성장로/신원그룹회장),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권오성대장/한미연합사부사령관) 각각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기도회에 참석한 교계 인사들은 이번 기도회가 무엇보다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나라와 민족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합심 기도의 시간 작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다.

## 한국경목총회 3월 월례회 및 기도회 가져



총회장 허 식 목사

한국경목총회(총회장 허 식 목사)는 2012년 3월 월례회 및 기도회를 경

시 하안동 소재 함께하는교회(담임목사 이상재)에서 개최했다.

총회장 허 식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남규열 목사(부회장)가 기도를 하고, 허 총회장은 요한복음 20:22절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허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복된 말씀이라며 늘 감사하에 얹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고 흩어진 것은 말씀을 떠난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주셨고 위로해 주

누어주는 자세라고 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경목위원들을 사랑하고 초청해 준 이상재 목사(함께하는교회)를 높이치하하고 감사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허 총회장은 목회방향에 대해 선교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자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경목 모두가 선교방법에 있어서 성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한경총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한경총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한 후 이상재 목사(함께하는교회)축도로 마쳤다.

2부 월례회 회무는 의장 허 식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흥향표 목사(사무총장)의 결과보고에서 지난 2월 9일 임원회에서 3월 12일 주간 필리핀 선교여

교회에서 마련한 담임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축하감사예배를 드렸으며, 허 총회장은 축사를 전했다. 또한 허 총회장은 지난 5월(월) 경기도 용인시 구서지역연합회의 초청을 받아 이단대책세미나를 인도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나라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아도 나라는 견뎌낼 수 있지만 이 땅이 좌경화가 되면 나라는 위태롭다고 했다. 한국교회가 좌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국교회는 살고, 좌경화가 되면 한국교회는 설자리를 잃고 만다고 역설했다. 그러므로 한경총의 기도를 당부했다.

또한 한경총은 4월 부활절예배 준비는 실무진에게 위임하고, 4월 중순쯤 1박 2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하루는 한국경목총회에서 발간하는 신문발행인은 총회장이 되며, 앞으로 한국경

### 한국경목총회 주간지 경찰기독신문을 새롭게 발간할 예정

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내 던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만나주셨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게 하였고, 그 결과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

또한 총선을 앞둔 기독교사실현당, 기독교자유민주당 등 세 곳을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는 허 식 총회장을 모시고 동행했으며, 허 총회장은 당대표들과의 독대에서 기독교당이 하나로 합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 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한기총 18대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취임감사예배와 경시

행은 가을로 연기되었고, 3월 월례회 및 기도회를 이상재 목사(함께하는교회)에서 갖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총선을 앞둔 기독교사실현당, 기독교자유민주당 등 세 곳을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는 허 식 총회장을 모시고 동행했으며, 허 총회장은 당대표들과의 독대에서 기독교당이 하나로 합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 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한기총 18대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취임감사예배와 경시

찰기독신문 문제는 허 식 총회장과 홍향표 사무총장에게 위임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경찰선교를 위하여 새로운 신문을 창간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기도회는 1.나라와 민족을 위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위해서 문미영 목사, 2. 경찰청장 및 13만 직원과 50만 가족을 위해 박양우 목사, 3. 경목총회 모든 선교행사를 위해 조길봉 목사, 4. 한국경목총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을 위해 장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발행인)등이 기도했다.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턴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지명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정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단법인 기독교술원 이사장 ●세계원주인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협의회 총재 ●전원종양교회 담임목사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 학과

| 과 정                          | 학 과     | 기 간                 | 자 격                            | 비 고                         |
|------------------------------|---------|---------------------|--------------------------------|-----------------------------|
| 학 부                          | 신 학 과   | 8 학기                |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 목회자 및 연구과정                  |
|                              | 선교학과    |                     |                                | 선교사 준비                      |
|                              | 상담학과    |                     |                                |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
|                              | 무용학과    | 6 학기                |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
|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         |                     |                                |                             |
| 대학원부                         | 상기의 전학과 | M.Div.6학기<br>기타 4학기 | 학부 과정을 필한 자                    |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
| 학 술 원                        | 해당학과    | 4~6학기               |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
| 편 입 생                        | 각 학 과   | 1~3년                |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

###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獨)Ruh-Universität Bochum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명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Universität Bochum  
임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철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學大學校大學院  
박종철교수(가정상담학) : (D.C.O)(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우금 교수(MBTI) : (Ph.D)이화여자 대학교, 피어선신학 대학교  
박성규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學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학)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 : (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 · 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담임 소진우 목사

라이프월드미션총재  
저지스타임즈 사장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석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



##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 제목: 아브라함의 순종

성경: 창세기 17장9절-27절 찬송가 332장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할례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명령 받은 즉시 자신을 비롯하여 이스마엘과 집안 모든 남자 즉 모든 종에 이르기까지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순종의 모습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난관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받아 누리려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하나님 대하듯 하라

성경: 창세기 18장1절-15절 찬송가 222장  
본문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 나가 영접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에도 이웃을 향한 사람이 가득하였던 사람인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 말씀에 '급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 영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진정 사랑하며 베푸는 모습이 삶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 18장16절-21절 찬송가 312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택하시고 축복을 재확인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하나님께 선택 받은 가정으로서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네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성경: 창세기 18장22절-33절 찬송가 362장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계시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이 아닌 멸망 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네 옆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 19장1절-11절 찬송가 445장  
롯이 거하는 소돔은 죄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롯의 집에 찾아 온 손님과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 노소를 불문하고 다 모여 강제로 끌어내려고 할 만큼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지금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 속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롯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세상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만큼은 신앙과 세상 양쪽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구원의 길(1)

성경: 창세기 19장12절-22절 찬송가 208장  
본문을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구원의 방법은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며 또한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인간적 성취 또한 자랑하거나 과거의 실수로 인해 좌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앞만 보고 전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구원의 길(2)

성경: 창세기 19장12절-22절 찬송가 283장  
본문을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은 '들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들이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데 있어서 그럴듯한 유혹의 자리 호기심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기에는 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결국 사단이 마련해 놓은 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걸어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구원의 길(3)

성경: 창세기 19장12절-22절 찬송가 289장  
본문을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구원의 방법은 '산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의 상징이며 파란색의 상징이 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산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험준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리스도인인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을 오르신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성경: 창세기 19장23절-28절 찬송가 284장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소금기둥이 된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천사의 지시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법게 여기고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을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해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보고도 순종하지 않는 롯

성경: 창세기 19장29절-38절 찬송가 587장  
본문을 보면 롯과 그의 딸들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굴에서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의 불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때문에 소알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또 소돔의 멸망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모를 소알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신은 결국 근친상간이라는 엄청난 죄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아브라함의 실수

성경: 창세기 20장1절-18절 찬송가 483장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이와 같은 죄를 애굽에서 지은 바가 있습니다. 18장에서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바로 알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성경: 창세기 21장1절-7절 찬송가 434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이 이루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 하실 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생식가능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러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도 할 수 없다 낙심하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선택받은 가정으로

성경: 창세기 21장8절-21절 찬송가 297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인간적인 노력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제목: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성경: 창세기 21장8절-21절 찬송가 326장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화친 조약을 맺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방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위치를 높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또한 무엇을 먹고 마실 때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사순절의 기도와 영성생활

2012년 3월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으로 영성생활이 되어야 한다. 사순절은 긴 겨울이 지나간 봄에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사순절이라는 말 'lent'는 라틴어로 봄을 의미하는 'lenten'에서 왔다고 한다. 겨울의 죽음을 이기고 피어난 생명이 봄이라면 죽음의 겨울을 이기고 피어난 새 생명이 사순절이기 때문이다. 이 사순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교회사에는 이 기간이 성도들의 영성생활에 아주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이게리아의 일기'(Egeria's diary)이다. 이게리아는 주후 4세기 초 스페인에 살았던 경건한 여자 성도였다. 그의 평생 소원은 성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었는데 1년 이상 걸린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경이와 감격 속에서 성지순례를 마치면서 초대교회 영성생활에 대한 좋은 자료들을 남겼다. 특히 그가 사순절 기간에 경험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다.

당시 성도들은 사순절을 아주 경건하게 보냈다. 이 기간에 그들은 매일 예수님의 부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고, 사순절 기간 내 한 끼씩 금식했다. 그 중에 '아푸타티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서원했으며 평소 하루 한 끼만 먹고 살았고, 사순절 기간에는 거의 금식하면서 살았다. 또 이 기간에 성도들은 매주 금요일에 모여 철야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었으며 기도는 토요일 새벽 성찬예배 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이 기간에 검소하게 살기 위해 빵이나 기름을 먹지 않았고 심지어 과일도 먹지 않았다. 고기는 아픈 사람을 제외하고는 먹지 않았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거나 포도주, 혹은 화려한 옷은 스스로 삼갔다. 고난 주간에는 모든 성도가 금식했고, 성금요일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텅 빈 정도로 교회에 모여 금식했다. 이러한 생활이 부활절 아침까지 계속되다가 부활절이 지난 후 평상시로 돌아갔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온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며 보냈다. 이 아름다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행복한 영성생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추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복음)총회

총 회 장



곽동훈 목사  
(행복의집 원장)

총 회 장 곽동훈 목사 회 록 서 기 서정일 목사  
부 총 회 장 김기섭 목사 부회록서기 전희권 목사  
정은섭 목사 회 계 박종숙 목사  
서 기 장백항 목사 부 회 계 박인숙 목사  
부 서 기 한창현 목사 총 무 강정자 목사

총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59-1  
문성빌딩 3층 303호  
☎ 02)2632-4463 H.P 010-7405-9191

## 추 부 활

꿈을 이루고!  
터를 닦으려!



담임 정연우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 정규예배        |                   |                       |
|-------------|-------------------|-----------------------|
| 주일 전례예배(1부) | 오전 9시 (래인보우 아트홀)  | 유치부 예배                |
| 주일 전례예배(2부) | 오전 11시 (래인보우 비전홀) | 주일 오전 11:00(색동홀)      |
| 주일 청년예배     | 오후 2시 (래인보우 아트홀)  | 주일 오전 11:00(교육관)      |
| 주일 오후예배     | 오후 3시 (래인보우 비전홀)  | 청소년부 예배               |
|             |                   | 주일 오전 11:00(래인보우 아트홀) |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032)552-5200 Fax. 552-5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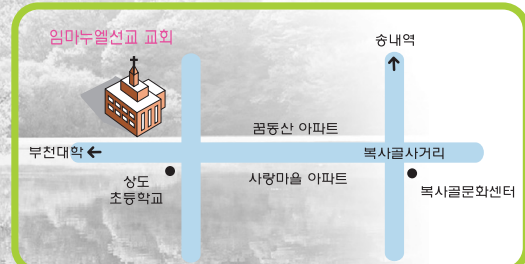
## 추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철야: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 추 부 활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96:6-9)

"종교와 위업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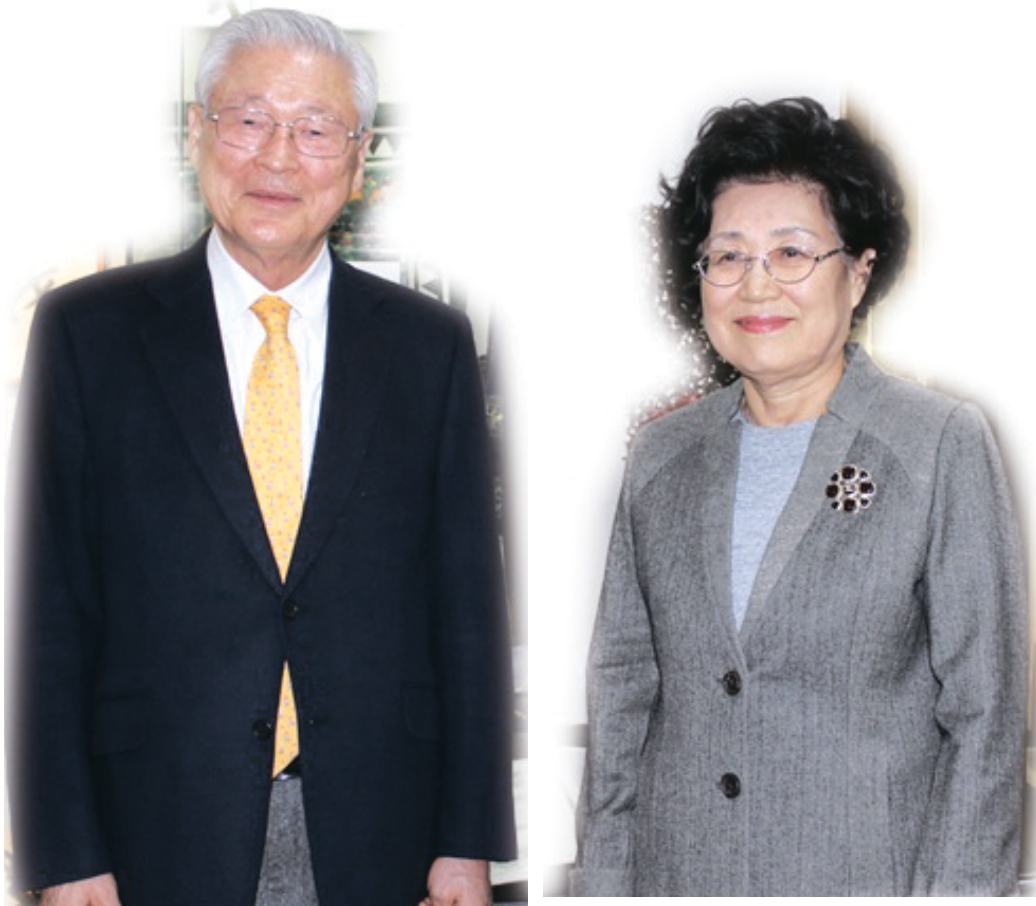
| 예배안내     |             |          |         |  |
|----------|-------------|----------|---------|--|
| 예배       | 시간          | 장소       | 비고      |  |
| 세례기도     | 매일 새벽 5:30  | 본당       | 성경강화    |  |
| 주일 1부 예배 | 주일 오전 11:30 | 본당       |         |  |
| 주일 2부 예배 | 주일 오전 10:00 | 본당       | 영탄예배    |  |
| 주일 3부 예배 | 주일 오전 11:30 | 본당       |         |  |
| 주일 4부 예배 | 주일 오후 2:00  | 본당       | 특별헌신기도회 |  |
| 주일 5부 예배 | 주일 오후 4:00  | 본당       | 찬양예배    |  |
| 수요기도회    | 수요일 오후 8:00 | 본당       | 월간기도회   |  |
| 각구역예배    | 각구역별 지정시간   | 각구역별 구역장 | 새가족초대예배 |  |

| 교회학교 예배안내 |             |          |            |  |
|-----------|-------------|----------|------------|--|
| 부서별       | 시간          | 장소       | 대상         |  |
| 유치부       | 주일 오전 11:30 | 본당 지하 2층 | 취학전 아동     |  |
| 유년부       | 주일 오전 9:00  | 본당 지하 2층 | 초등학교 1~3학년 |  |
| 소년부       | 주일 오전 9:00  | 별관 교육관   | 초등학교 4~6학년 |  |
| 중동부       | 주일 오전 11:30 | 별관 교육관   | 중학생 및 동급생  |  |
| 고동부       | 주일 오후 8:30  | 별관 교육관   | 고등학생 및 동급생 |  |
| 청년 2부     | 주일 오후 4:00  | 본당       | 19~34세 미혼  |  |
| 청년 1부     | 주일 오후 4:00  | 본당       | 35세 이상 미혼  |  |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대 광 교 회 대표전화: 031)384-7408 부목사실: 384-9744, 385-8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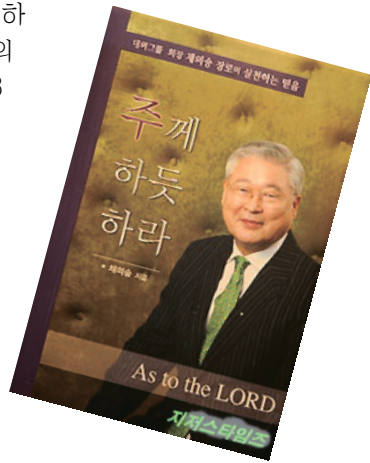
# 대의미션선교센터개관 “100개 교회 모도로”



채의승 목사&amp; 김효신 목사 부부

**채의승 목사**(73,화양감리교회)는 어린 시절 예수를 영접하고 세 가지 꿈을 갖게 되었는데, 박사가 되는 것, 대기업 총수가 되는 것, 세계 오지에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주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웃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타고난 성실함과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40대에 경제학 박사가 되어 교수로 임용되었고, 대 그룹 삼성을 거쳐 대우그룹 아메리카 사장에 등극했다. 지금은 대기업 회장으로서 10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채 회장은 또 한 더 큰 비전을 갖고 5대양 6대주를 향해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는 또 그동안 98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100개의 교회가 2013년도에 완성될 예정이다.

채의승 목사  
저서 주께 하듯 하라

채의승 대의그룹 회장은 예레미야 3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는 말씀에 큰 꿈을 갖게 되었고,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로 5대양 6대주를 넘나들며 세계적인 전도자로 꿈을 완성해 가고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축복을 받은 채의승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에 ‘대의미션선교센터’ (선교관)를 개관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선교관에는 세계 곳곳에 선교를 다니며 기증받은 100여 점이 넘는 사진과 옷, 각종 기독교 서적, 성경과 교서들이 전시돼 있다.

채 회장은 1985년 그 좋은 대우그룹 총수 자리를 내려놓고 1991년부터 스리랑카에 교회를 세웠고, 그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계속해서 바울선생의 고향인 터키 다소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2년 동안 다섯 번의 실패가운데 즈반아에 교회를 세우는 감격, 그곳은 95%가 불교지역이었다. 그 후 2011년에 11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복이 허락되었다.

이곳에 대의미션선교센터는 하나님께 56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였다고 말한다. 채의승 목사와 아내 김효신 목사는 지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 선교센터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특히 선교관에는 선교사들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부담가지지 않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영적충전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채 목사는 위기와 시련을 꿈을 성취하는 기회로 감는다면 이 역경을 자손들과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채 회장은 공장에 화재가 나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 IMF때 환율이 올라 기업이 도산할 뻔한 위기와 선교하던 중 수차에 걸려 사선을 넘는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고백한다.

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이곳에 선교관을 개관하고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다. 저의 가정은 3대째 장로요, 3형제가 장로이며, 36살 때 장로가 되었습니다. 현재 5대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일가친척을 비롯 560명의 가족들이 불신자 한 사람 없이 100%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안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정을 가리켜 신앙의 명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이 대의미션선교센터가 설립되기 전 성북동 75-37번지는 무당이 살았고 옆 건물이 천주교회인데 그곳에서 새벽마다 부르는 찬송소리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우리에게 집을 팔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 선교관에서 100개의 교회를 세계 곳곳에 세울 수 있

『고등학교 2학년 때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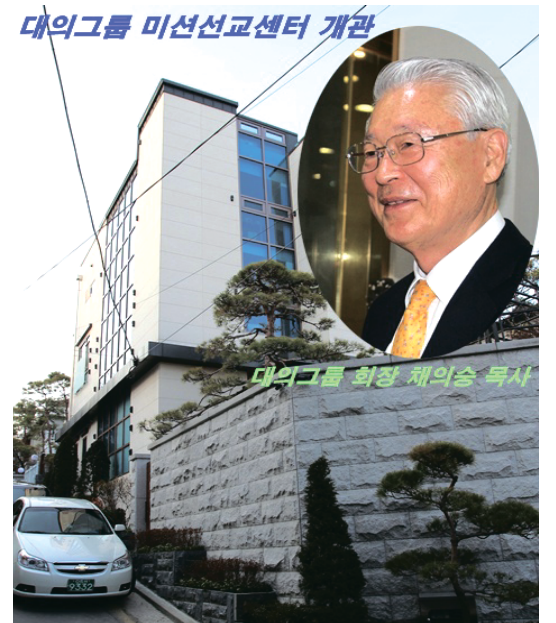
“성전건축이 먼저, 선교관과 내 집은 나중에 이어 1000교회 건축을 약속”

게 해 달라며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75-37번지는 세계 곳곳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춧돌이요 모포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채 목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나와 너의 임마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지만, 너희들과 너희 2세에 걸쳐서 1000개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자 자녀들은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을 했습니다.

채 목사가 쓴 “주께 하듯 하라”는 책에서 평생 동안 10의 3조 이하는 현금한 적이 없었으며, 지금은 10의 9조를 선교 사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만 가지고 쓰고 먹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채의승 회장(73), 아내 김효신(71)씨는 신학을 같이 했으며, 예장 성경총회 서울1노회(노회



대의미션선교센터

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 갈 것이라며 감사드리며 다짐을 한다.

한편 이날 항상 기도와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라며 대의그룹 미션선교센터에서 김수영 장로의 인도로 성결인신론 박병득 국장의 기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채의승 목사는 사도행전 1:8절을 중심으로 “땅 끝의 중언”이란 제야의 말씀으로 설교한 후 저지스타임즈(JTN방송)정기남 목사(국장)의 축도로 마쳤다.

## 2012 부천시 약사회 조찬기도회 열어

‘화합과 복음화위해’

사순절 기간을 맞아 부천시 약사회(회장 한일룡)는 3월17일(토)오전 6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3층 회의실에서 화합과 복음화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갖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열기로 약사회 회원들의 영성에 주의 은총이 가득하길 느껴지고 있었다.

김선한 장로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김지학 권사(부천기독교약사회 증경회장)의 기도가 드러지고, 배정미 집사(사랑이 꽃피는 약국)는 발립보서 3장 10~11절을 봉독하고, 부천기독교약사회 회원 일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어 한성준 목사(열방선교회)는 “죽음의 부활”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 부천시를 위한 기도를 박준민 장로(전원중앙교회)가, 부천시 약사회를 이한 기도를 이수국 집사(운누리동아약국)가 드린 후 한성준 목사 축도로 조찬기도회 예배를

마쳤다.

이어 나눔과 조찬의 2부 순서에서는 한일룡 부천약사회 회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김선한 부천기독교약사회 회장의 광고가 있는 후 기념촬영을 했다.

부천시 기독교약사회는 1990년 10월 18일 창립되어 1991년 3월 5일 낙도 선교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에 선교의약품비, 해립원 방문 찬조 6년째, 시대들의 족자 후원, 통일열원 인간미 행사 참가, 사랑선교회(시흥 장애인 공동체)후원, 샘물호스피스 방문 후원, 시각 장애인 일일꽃집 후원, 장영인 선교사(방글라데시)10년간 후원, 성탄축하 가족찬양의 밤, 평안의 집(시흥시 미산동) 의약품 지원 및 방문 후원, 아프리카 오지에 교회건립 헌금 모금 중(가칭 부천기독교약사회 기념예배당)에 있다.

이 외 부천기독교약사회는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고 있는 복 있는 단체이다.



##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담임 이재갑 목사  
웨신총회 부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2012 목회 지침**

네 장막터를 넓히라 (사54:2)  
성령의장막터를 넓히자----은사  
영혼구원의 장막터를 넓히자--세계선교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자 --- 섬김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자 ---- 박음

부목사 : 송승길  
장 로 : 박경순, 김혜자  
전도사 : 임사랑 최원희 박에스터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한예수교장로회

#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담임 정대성 목사

담임목사 : 정대성 선교사  
부목사 : 임찬미 선교사  
장 로 : 최원영 선교사  
전도사 : 전은혜 선교사, 합다니엘 선교사  
조에스터 선교사, 황연아 선교사  
전도사 : 정희선 선교사, 이부자 선교사  
반주자 : 박시은 박신내 정은주

예 · 배 · 시 · 간

주일낮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9:00  
주일저녁집회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2:00  
심야기도회 매일오전9:00  
학생부예배 주일오전9:00  
축복성회 매주일 토 저녁9:00~  
주요예배 수요일오후 8:00  
매주주일 저녁7:30~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 북괴 反유신 反박근혜 투쟁지령

전교조 민노총 촛불폭도 발호와 민통 통진의 집중공세 예상

북괴 대남공작의 본산인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23일 "유신독재의 망령을 부르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제목의 10P 크기 글자로 A4용지 11쪽에 달하는 장문의 조사보고서를 발표 했다.

보고서는 서두에 "남조선에서 최악으로 가득 찬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보수패당의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내외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를 똑똑히 알리기 위해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함으로써 남한 총선대선을 겨냥하여 종북 반역세력에게 하달하는 반유신투쟁 논리와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박정희를 특등매국노, 회색의 파소독재자, 극악한 반통일 대결 狂, 예측경제의 고질병을 만든 주범, 등으로 묘사하느라 나름대로 관련 근거를 짜깁기 하듯 조목조목 끌어다 붙이면서 악의적으로 비난 매도하는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 썼다.

예컨대, 일본유사자를 나와 만주에서 110여 차례나 독립군 토벌작전에 나섰다는 황당한 주장을 비롯하여 미국의 사주를 받아 5.16군사혁명을 일으켰다. 1948년 여수순천반란사건 때 군내에 침

투한 애국적군인(공산반군)을 밀고하여 650여명의 장교와 1000여명의 군인(반군사병)들을 체포 처형했다는 식으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박정희가 혁명공약을 통해서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선포하고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한 사실과 1965년 6월에 "우리의 지상과제는 더 말할 것 없이 승공통일"이라고 발표한 대화내용, 7.4성명 직후 1972년 7월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은 지나친 낙관과 속단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 모든 분야의 국력배양에 힘쓰라."고 지시한 내용을 들어 분열 狂이라고 비난하였다.

보고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박정희시대의 산업화 업적을 친 재벌 저임금정책으로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겼으며 예측경제의 고질병을 만든 주범이라고 매도하였다.

나아가서는 올해 총선대선국면을 겨냥하여 "아무리 남조선에 내세를 인물이 없다한들 특등매국노이고 극악한 살인마이며 반통일대결분자로 악명을 떨친 박정희와 같은 만고의 역적을 내세우는 놀음이 벌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민족의 수치"라면서 "(박근혜가) 민주화의 투사도 아니고 악명 높은 유신독재

의 태줄을 달고 있는 잔당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유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변했다.

보고서는 "유신독재의 총칼에 피멍이 든 남조선인민들의 원한은 지금도 구천에 사무치고 있다."며 "유신독재의 망령을 퇴살하려는 유신잔당들은 역사와 민족의 단호한 심판을 받고 파멸되고야 말 것"이라고 저주와 악담을 퍼 부으며 남한 내 종북 반역세력을 선동 했다.

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총선대선을 직접 겨냥한 것이며, 김정은이 취약한 권력기반과 파탄 난 경제, 등을 몰고 만민심으로 인해서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상대적으로 남한에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인 박근혜를 중심으로 <제2의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 자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명숙의 SNS 살인경선예다가 이정희의 여론조작 부정경선 파문이 겹치면서 북이 심혈을 기울였던 <야권연대=반보수 진보대연합>이 무너지기 위기에 처하자 남한 내 종북 반역세력에게 <반격의 논리와 역공의 방향>을 제시하여 선거투쟁에 직접 개입,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북 미사일 불꽃놀이 자멸의 길

북괴 군부의 "연평도 불 땀", "청와대 서울 인천 불바다" 전쟁협박이 우리 정부 및 군 당국의 강력한 보복태세와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강화로 씨알이 먹혀들지 않게 되자, 대남공작부서인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나서서 가장 유력한 여권대선주자에게 종북 반역세력의 공세를 집중토록 유도 하는 양수검장을 노린 것이다.

아마도 전교조 민노총 전국언론연합 진보연대 등 촛불폭도와 민통 통진 반역세력들은 김정은의 선거투쟁 지령에 따라서 반유신 반박근혜 공세를 극렬하게 전개 할 것이며, 일부 위장보수 세력이 이에 편승 가세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위장이던 짝퉁이던 보수를 표방한 이상 적의 농간에 넘어가고 간교한 이간 책동에 이용당하는 등 경쟁을 넘어 敵을 이롭게 하고 아군 등 뒤에서 총을 쏘는 利敵行爲 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게 되면 전망대에서 폐회 예배를 드림으로 십자가도보순례 전 행사 일정을 마치게 된다.

총회장 최래승목사는 "시대가 자본주의의 인본주의화 되면서 기독교의 영성이 훼손되는 안락함을 보게 되는데 지금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영성회복과 함께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이며 "도보순례기간 저녁시간은 영성회복을 위한 부흥회를 개최해 십자가순례의 체험과 함께 영성회복을 위한 말씀성회를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십자가 도보순례에 동참하고 싶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합동성광총회로 연락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숙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 제3회 십자가도보순례

4월 2일부터 강화도 일원서 진행

예장합동성광총회(총회장 최래승목사)는 오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강화도 일원에서 '아!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제3회 십자가 도보순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가락질과 등 돌림을 받고 있는 열리는 이번 도보순례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교단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번 순례에 사용되는 십자가는 길이 5.5m, 폭15cm정도의 나무로 만든다. 이 십자가는 보통 성인이 어깨에 메고 일어나려면 움짱할 수 있는 무게인데, 순례자가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으로 분장하여 어깨에 메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정해진 코스를 순례하는 것이다.

그 뒤로 로마군병으로 분장한 7-8명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을 조종하며 모욕하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이 골고다로 오르시던 현장을 재현할 예정이다.

십자가 도보순례 행사의 구체적인 진행을 보면 첫날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교회(양화진 외인 묘지)에서 12시에 개회예배를 드리고, 양화진 경내에서부터 합정역까지 도보로 순례를 한 후 차량을 통해 강화도로 이동한다. 강화도 길상리에 위치한 장소에 도착, 출정기도회를 갖고 첫째날 6.2km를 도보순례를 한다. 둘째날 해안도로를 따라 북상하여 갑곶 뜰까지 약15km를 도보로 순례를 진행하며, 셋째날에는 강화도 북단에 있는 철산리소재 평화전망대까지 약10km를 도보로 순례하고 모든 과정을 마치

칼럼

## 자유를 향한 탈출



서영웅 목사  
퓨리탄장로교회 / (상임이사)

변화는 새로운 역사를 창출한다. 그것은 삶의 축적이며 힘인 것이다. 자유와 평화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북한 주민 탈북자를 국경에서 중공군이 체포해, 강제복송 한다는 문제로 탈북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강력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생명을 내걸고 탈북한 그들에게 정부는 신속한 외교정책으로 강제복송을 막아야 한다. 또한 실형인들에 대한 삶의 타전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겹겹이 쌓인 철조망을 뚫고 삼엄한 인민군의 경비를 피해 탈북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다.

탈북한 인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공정부가 강제복송을 계획하고 있음은 중국이 북한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어느 것 보다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탈북자를 강제복송할 경우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삶이 될 것이다.

탈북자 복송 반대를 위해 단식농성을 하면서, 복송저지를 호소하고 있는 탈북 동료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강제복송 저지에 대한 시위는 그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북한 동포들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전후 세대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6·25의 참상을 겪은 세대들은 영양식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오직 무엇이든지 먹어 배부름만을 바랬을 뿐이다. 고통에 참여해 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동족의 아픔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탈북 귀순한 새터민 들에게도, 따뜻한 배려와 생계의 지원 등으로 힘과 용기를 주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여 생명을 걸고 귀순한 것이다. 고통과 어려움을 참기 어려운 것이다. 생명이 있기에 참고 견디는 것이다.

생명의 위력은 가혹하리만큼 끈질긴 것이다. 바위 위에 풀 한 포기도 수분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북한 동포의 자유를 향한 탈출은 철의 장막을 뚫고 죽음을 각오한 탈출이다.

북한공산주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평등사회를 꿈꾸지만 그것과는 정반대로 전

국민을 노예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 좌경세력에 대해 철저히 색출 검거하여, 정치적 혼란이 없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겨울의 찬바람도 지나고 서서히 따뜻한 봄기운이 찾아와 산과 들에는 초록색으로 단장되고 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있어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계절의 변화는 모든 생명체에 활력을 주어 성장시키고 있다.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은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진정으로 국가가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발전과 변화는 국민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새로이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인들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막강한 국방력이 더 중요하다. 더 이상 북한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하겠다.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생안경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음은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남침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포격 당시 우리의 대응은 너무도 미미하여 부끄러울 뿐이다. 왜 이렇게 나약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아직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다. 더 이상의 남침은 온 국민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금번 탈북자 복송계획에 대해 정부는 신속한 외교로 그들을 자유 대한의 품으로 인도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살고 있는 탈북자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잊지 말자.

2012 주제 : 큰 복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 국제복음선교회

## International Good news Missionary work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부회장  
백중만 목사  
(예담교회)



부회장  
김동훈 목사  
(열린문교회)



부회장  
계승찬 목사  
(대안열린문교회/수양관)



부회장  
이현구 목사  
(수정교회)



서기  
한홍석 목사  
(만신매일교회)



회계  
이보배 강도사  
(큰믿음교회)



간사  
이성민 목사  
(새소망교회)



간사  
하중우 목사  
(비율선교교회)



사무총장  
송요엘 목사  
(넘치는교회)

할렐루야!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엄청난 부활의 선물을 주신 이 기쁨과 소망이

국제복음선교회 가족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대표회장 이재갑 목사 외 임원 일동 배상

국제 선교사파송 / 단기선교 / 목회정보/ 영성훈련/연합집회/친목도모/

회원 38명/ 동참을 원하시는 목사님은 연락주세요





# 소진우 목사 2011년-2012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b>2011년 1월</b><br>1/1 감델산기도원(임예제 원장)<br>3-5 토마스교회(이주호 목사)<br>7 신남교회(이영준 원장)<br>9-15 신남교회(이영준 원장)<br>13 김리교회(이영준 원장)<br>16-19 성미교회(이영준 원장)<br>24 감델산기도원(이영준 원장) | <b>2011년 2월</b><br>31-4 캄보디아 선교대회<br>6 호창중앙교회(최복진 목사)<br>7-9 순산교회(이영준 목사)<br>13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4-17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0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1-23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4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7-3/2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1년 3월</b><br><b>복합축복대심방</b><br>7-10 성서교회(이영준 목사)<br>13-16 월계성교회(이영준 목사)<br>20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8-31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1년 4월</b><br>4-7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7-9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0-12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2-14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7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8-20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5-27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1년 5월</b><br>2-4 서울서지방영전도연합성회<br>5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7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8-11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5-18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2-25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9-31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1년 6월</b><br>6-8 소망교회(이영준 목사)<br>13-17 성서교회(이영준 목사)<br>17-20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0-22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6-7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1년 7월</b><br>4-6 새영교회(이영준 목사)<br>10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1-15 신남교회(이영준 목사)<br>18-21 신남교회(이영준 목사)<br>23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5-27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1년 8월</b><br>1-4 금산미남누수양관(이수영 원장)<br>5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7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8-11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5-18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2-25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9-31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1년 9월</b><br>4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5-9 오노리복음화협회(이영준 목사)<br>12-15 동교교회(이영준 목사)<br>18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9-22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4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6-28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1년 10월</b><br>2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3-5 안주교회(이영준 목사)<br>10-12 신남교회(이영준 목사)<br>13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7-19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3-2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7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30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31-11/2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1년 11월</b><br>3 베네딕도교회(이영준 목사)<br>7-9 베네딕도교회(이영준 목사)<br>14-16 베네딕도교회(이영준 목사)<br>17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1-24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7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1년 12월</b><br>5-7 성서교회(이영준 목사)<br>8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2-1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9-22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5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6-28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1월</b><br>2-4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9-11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3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6-18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9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2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2월</b><br>6-9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2 예수성령교회(이영준 목사)<br>13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4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5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7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8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9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0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1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2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3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4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3월</b><br><b>축복대심방</b><br>5-7 수원교회(이영준 목사)<br>18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4월</b><br>2-4 하예성교회(이영준 목사)<br>5-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9-10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1-13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5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7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8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9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0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1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2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3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4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5월</b><br>31-3 천보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7-9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3-1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1-24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6월</b><br>3-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0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7월</b><br>2-5 사명자영성회(이영준 목사)<br>9-10 신남교회(이영준 목사)<br>23-2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8월</b><br>8-10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1-1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0-23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7-30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9월</b><br>3-6 오노리복음화협회(이영준 목사)<br>10-12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7-20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4-2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10월</b><br>7-9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5-16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2-23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9-31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11월</b><br>7-9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1-14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8-21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26-28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b>2012년 12월</b><br>3-5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0-12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br>17-21 감델산기도원(이영준 목사) |
|-----------------------------------------------------------------------------------------------------------------------------------------------------------------|-------------------------------------------------------------------------------------------------------------------------------------------------------------------------------------------------------------------|----------------------------------------------------------------------------------------------------------------------------|----------------------------------------------------------------------------------------------------------------------------------------------------------------------------------|----------------------------------------------------------------------------------------------------------------------------------------------------------------------------|----------------------------------------------------------------------------------------------------------------------------------|---------------------------------------------------------------------------------------------------------------------------------------------------|--------------------------------------------------------------------------------------------------------------------------------------------------------------------------------|-----------------------------------------------------------------------------------------------------------------------------------------------------------------------------|-------------------------------------------------------------------------------------------------------------------------------------------------------------------------------------------------------------------------|------------------------------------------------------------------------------------------------------------------------------------------------------|-------------------------------------------------------------------------------------------------------------------------------------------------------|-------------------------------------------------------------------------------------------------------------------------------------------------------------------------|------------------------------------------------------------------------------------------------------------------------------------------------------------------------------------------------------------------------------------------------------------------------------------------------------------------------|--------------------------------------------------------------------------|-----------------------------------------------------------------------------------------------------------------------------------------------------------------------------------------------------------------------------------------------------------------------------------------------------------------------------|--------------------------------------------------------------------------------------------------------------|------------------------------------------------------------|------------------------------------------------------------------------------------|----------------------------------------------------------------------------------------------------------------|-----------------------------------------------------------------------------------------------------------------|----------------------------------------------------------------------------------------------------------------|----------------------------------------------------------------------------------------------------------------|----------------------------------------------------------------------------------------|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 예장(웨신) 대한노회



노회장  
강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  
(송리교회)



서기  
박민규 목사  
(백호살롬교회)



회의록서기  
충베도 목사  
(성령진리교회)



회계  
유윤주 목사  
(지구촌교회)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교호 7층) H·P 010-4436-7060

## 피종전 목사 4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전 목사

|                                                              |                                                                         |                                        |
|--------------------------------------------------------------|-------------------------------------------------------------------------|----------------------------------------|
| 1(주)~ 4(수)<br>미국(U.S.A) LA 한인사모교회(안호웅 목사) ☎(310)715-9902     | 23(월) 오후<br>부천 결성교회(박승문 목사) ☎(011-9056-7350)                            | 장원 은혜교회(피종전 목사) ☎ 010-8540-8642        |
| 5(목)~ 8(주)<br>미국(U.S.A) LA 별명장로교회(변영익 목사) ☎(323)937-1733     | 23(월)~ 24(화)<br>부천 결성교회(박승문 목사) ☎(011-9056-7350)                        | 주: 21(부)부흥성경학교(총재 최성규 목사, 대표회장 유근만 목사) |
| 10(화)~ 12(목)<br>청주금성사모교회(원장 박호선 목사) ☎(043)269-5211           | 24(화) 오후<br>오산리교회(이영준 목사) ☎(031)947-0091                                | 주: 21(부)부흥성경학교(총재 최성규 목사, 대표회장 유근만 목사) |
| 14(토) 오전<br>공주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전 목사) 열림동 일당예배 ☎(041)852-2211      | 25(수) 오전<br>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기독교(대화장 김두봉 장로)                                | 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국남전대회연합회              |
| 15(주)~ 18(수)<br>전주 하인교회(정대화 목사) ☎ 016-654-0649               | 25(수) 오전<br>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기독교(대화장 김두봉 장로)                                | 장: 단양 대령리교회 ☎ 1588-4888                |
| 16(월)<br>공주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전 목사) 이매리안양동신학원 MT 예술제 ☎(041)852-2211 | 25(수) 저녁<br>광명 일직교회(김영선 목사) ☎(02)897-1192                               | 제170차 해외성회(170th Overseas Assembly)    |
| 19(목) 오후<br>오산리교회(이영준 목사) ☎(031)947-0091                     | 26(목)~ 24(주)<br>일본(Japan) 동경 감델산기도원(한정 김태실 목사, 정소대만 목사) ☎ 070-8625-9118 | 필리핀(Philippines) 마닐라선교대회, 장: 마닐라체육관    |
| 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총재 피종전 목사, 대표회장 진요한 목사)                         | 주: 글로벌세계선교대회(대표장 남은이 목사) ☎ 010-7705-8422                                |                                        |
| 19(목)~ 21(토)<br>인천 송도성령교회(조강원 목사) ☎(032)834-8291             |                                                                         |                                        |
| 21(토) 오전<br>인천 갈보리교회(김호성 목사) ☎ 011-204-4694                  |                                                                         |                                        |
| 21(토) 오후<br>인천 행복교회(이화영 목사) ☎ 010-9204-7706                  |                                                                         |                                        |
| 22(주일) 오후<br>광주 정금교회(박유성 목사) ☎ 010-5397-3478                 |                                                                         |                                        |



## 예수다시 사셨네~

###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 선교사 : 김경자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 예/배/시/간/안/내

| 예배      | 시간       | 예배      | 시간        |
|---------|----------|---------|-----------|
| 주일 대 예배 | 낮 11시    | 주일학교    | 오전 9시     |
| 주일저녁예배  | 오후 2시    | 학생회     | 토,오후 5시   |
| 수 요 예 배 | 오후 7시30분 | 청년회     | 토,오후 6시   |
| 새 벽 예 배 | 새벽 5시    | 여전도구역예배 | 금,낮 11시   |
| 금요철야예배  | 밤 9시     | 남전도구역예배 | 매월토,저녁 6시 |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 H·P : 010-4436-7060



#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총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절)



총회장  
성흥경 목사  
수원송석교회



부총회장  
이계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부총회장  
김춘택 목사  
부천은천교회



서기  
장창운 목사  
열린찬양교회



부서기  
정일량 목사  
향기로교회



회의록서기  
박영남 목사  
춘천중앙교회



부회의록서기  
조철준 목사  
큰빛교회



부활절을 맞이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총회장 성흥경 목사 외 임원일동



회 계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부회계  
유윤주 목사  
지구촌교회



총무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



감사  
지영철 목사  
동서요교회



감사  
정규남 목사  
주복음교회



감사  
이규 목사  
동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5동 442-105번지 201호 ☎ (02) 835-2607 FAX : (02) 835-2608  
http://ws21.onmam.com E-mail:sec21ch@hanmail.net